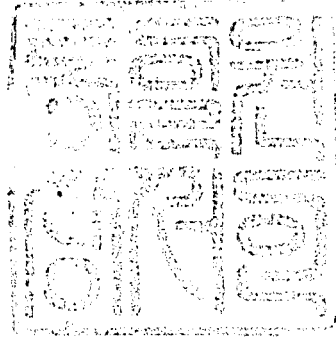


時事資料 · 第33號

統一教育



統一研究院

차례

I. 北韓動向

- ◎ 3大革命小組 役割提高 促求 5
- ◎ 北韓의 對南攻勢 焦點과 樣相 7
- ◎ 北韓,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의 連帶性強調 17
- ◎ 北韓의 南北對話 展開樣相 分析 20
- ◎ 南北 단일팀 構成과 北韓 立場 28

II. 共產圈 및 周邊動向

- ◎ 最近 蘇聯 및 東歐圈內 政治民主化 動向 39
- ◎ 中·蘇 外相會談의 開催結果 43
- ◎ 고르바초프 쿠바訪問 動向 47
- ◎ 하와이大學主催 國際 學術會議 “韓半島 問題”論議
動向 52

III. 資 料

- ◎ 文牧師 訪北關聯 問題性 言動事例 59

◎ 최근 北韓의 宗教實態와 政策	74
◎ 北韓 最高人民會議 豫·決算案 分析	81
◎ 85년후 北韓의 主要軍事動向 및 戰略強化實態	87
◎ 南北對話 機構의 性格과 機能	94
◎ 平壤 FM방송의 正體	104
◎ 北韓·蘇聯間의 經濟協力實態	110
◎ 最近 南北韓 交流 및 “當局間會談”에 對한 國外反應	116

IV. 알아봅시다

◎ 北韓의 冠婚喪祭	127
◎ 平壤市街地	130
◎ 大同江에 旅客船運航 宣傳	134
◎ “음력설”을 公休日로 지정	136

V. 統一教育專門委員 市·道協議會 動靜

◎ 慶尙南道協議會 사무실 개설	145
------------------------	-----

I. 北韓動向

- 3大革命小組 役割提高 促求
- 北韓의 對南攻勢 焦點과 樣相
- 北韓,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의 連帶性強調
- 北韓의 南北對話 展開樣相 分析
- 南北 단일팀 構成과 北韓 立場

◎ 3大革命小組 役割提高 促求

〈發表要旨〉

- 우리 革命隊伍의 통일단결을 위한 사상적 기초는 金日成이 創始하고 金正日이 끊임없이 發展 풍부화 시켜 나가는 革命思想, 主體思想임.
- 金正日의 “革命隊伍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데 대하여” 文獻에는 黨과 革命隊伍를 강화하고 경제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3大革命 小組運動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데서 거대한 意義를 가지는 強령적 指針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金正日의 賢明한 領導밑에 革命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文獻에서 제시된 思想 理論 方針들을 계속 철저히 貫徹해 나가야 할 것임.

(勞動新聞, 89. 3. 10)

〈評 價〉

- 金正日是 자기의 정치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73년부터 3大革命 小組를 結成, 既存 政務院 지도체계와는

별도로 직접관리해 오고 있음.

- 3大革命小組는 각급기관, 기업소등에 파견되어 조직관리 및 생산에서 思想性, 黨性등을 최대한 발휘토록 지도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기관, 기업소 업무전반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屋上屋의 2重管理體系를 이루고 있어 조직내의 기존 管理要員과의 마찰로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는 실정임.
- 금번 3大革命小組의 役割 提高를 다시 促求하고 있는 것은 政務院의 지도·감독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一面과 함께 昨年末 다시 시작된 200日戰鬪 督勵 및 7.1平壤祝典 준비를 다그치는데 그 의도가 있음.

◎北韓의 對南攻勢 焦點과 樣相

북한은 지난 2월 22일자 중앙방송을 통해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려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열의가 높아 가는 가운데, 얼마전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全大協」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축전에 초청했는데 「全大協」은 이 제의에 즉시 호응해서 참가의사를 밝힌 회답편지를 조선학생위원회에 전달해줄 것을 남조선적십자사에 요청했다. 이 회답편지를 받은 남조선 적십자사는 아직도 그 회답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있다. ...중략... 괴뢰도당은 제놈들이 조작한 협의기구를 통해서 축전참가준비를 해야하는 것 처럼 主張하고 있는데, 이는 당치않은 수작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2월 25일자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이런저런 자들이 「全大協」의 평양축전 참가문제에 중빨나게 끼어들어 쥐고 흔들려 하고 있다. 남의 잔치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한다는 속담 그대로 주제넘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2월 25일 평양방송을 통해, 이른바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명의로 한국의 언론출판탄압관련 공개질문장이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북남사이의 여러 갈래의 대화가 日程에 오르고 있는 최근, 남조선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심상치 않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8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측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 행사주관기관이나 단체가 북한의 청소년대표단을 초청했다고 했을 경우, 북한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점이라던가, 남북대화가 여러갈래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북한주민들이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과연 개방하겠는가 하는 점에서 볼때, 북한의 이같은 대남공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풀이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와같은 북한의 대남공세는 지난해 하반기중에 재미교포 언론인들을 연이어 초청한 사실을 비롯하여 금년초에 對南FM放送을 開設한 사실, 그리고 지난 구정(舊正)때 전례없이 북한 주민들이 명절을 쇠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北韓產物을 들여오고 있는 사실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 어선을 공해상에서 남북하

는가 하면, 휴전선에서의 총격도발 및 우리함선의 그들 영해침입 주장 역시 그러한 점에서 그 예외가 아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헝가리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데서 북한이 보인 반응이라던가 지난 1월 14일자 북한의 政務院 기관지 민주조선이 『일본이 서울당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남한과의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로 볼때,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南北韓 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두차례의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드러낸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의 金日成은 올해('89) 신년사에서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해 좋게 발전하고 있는 현정세의 국면을 적극 추동하여 올해는 반드시 나라의 평화통일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그가 『좋게 발전하고 있는 현정세의 국면』이란 그의 신년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내의 고조된 국민들의 統一論議와 더불어 특히 일부계층의 극단적인 통일주장을 말하는 것임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는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적인 투쟁조직을 결성하고 공화국 북반부 형제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조선에서의 統一運動이 새로운 발전계급에 들어섬으로써 남조선정세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같은 주장을 제의로, 『오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집체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한 統一論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연방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金日成은 7.7특별성명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변화와 이와함께 국민들간에 고조되고 있는 統一論議, 특히 일부 극단적인 통일논의세력들을 그들의 대남전략에 있어 한 고리 내지는 그같은 범주의 정세적 여건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이 신년사를 통해 들고나온 고려연방안이나 남북정치협상회의는 이와같은 토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한국민들의 이른바 「대중적 통일운동」이란 주장은 바로 극한적 통일논의와 그 세력을 反政府的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와같은 여론의 확산 내지는 가속화로 우리의 사회 혼란증대 선동을 위한 평화공세의 일환임을 말해주고 있

다.

對南 FM방송의 개시, 재미교포 언론인들의 평양초청, 그리고 음력설 명절의 전례없는 선전등은 한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므로써 한국내의 일부 극단적인 통일논의를 더욱 증폭시켜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대하여 혼란을 최대화 하려는데 그 저의를 두고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金日成이 남북정치협상을 제의하는데 있어, 한국을 정부 또는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인식아래 고려연방안이나 남북정치협상회의가 종래 그들이 되풀이해오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노태우」대통령을 국가수반이 아닌 일개政黨의 총재자격으로 여타 人士들과 함께 초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종래의 3자회담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을 평양에 초청한 사실도, 그들은 「고향방문」으로만 보도하다가 평양을 떠났다고 전하면서(2월 1일, 평방) 비로서 금강산공동개발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을 초청한 경위나 금강산공동개발에 합의한 그들의 기관은 물론 그 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 우리정부의 협력과 교류제외는 외면한채 북한으로서 금강산 개발과 같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없는 문제를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을 초청하여 협의한 사실들로 볼때, 이것 역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전략의 일환임을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한편, 공동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여론을 전제로, 그 책임을 한국정부의 고의적인 기피 내지는 전쟁준비 때문인 것으로 돌려 국민감정을 반정부 불만으로 몰아가려는 저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이와함께 한국의 北方外交나 대북한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손상시켜 사회개방을 적극화할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는 한편,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한정책에 호응해서는 달성할 수 없는 그들의 대남전략노선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대화의 회담장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는가 하면, 그러면서도 예비접촉은 계속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우리측의 제의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도 그러한 북한의 속셈을 대변하고 있다.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두차례의 예비회담때마다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고 있는 북한이 지난 3월 7일 「90년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시에는 그에 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데 반해, 3월 11일 팀스피리트훈련 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투동원태세 돌입 명령」을 하달하는 양면적 행위 역시 그 예외가 아닌 것이다.

金日成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의 중단을 전제로 했다.

북한은 인민무력부담화(1월 9일), 그리고 북한체육위원회위원장 김유순 도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 영향을 미칠것(1월 4일)이라고 했으며, 같은날 당기관지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 훈련이 북한의 경제건설에 제동을 걸려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철두철미 복침을 노린 공격준비』(1. 17, 중앙방송) 이라는 주장과 함께 1월 18일에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항의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들고나섰다.

그리고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2차 예비회담이 끝난후 북한측단장 백남준 이 통일각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없이 회담이 끝난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한 사실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이 2월 8일로 예정되었던 국회회담을 위한 제8차 실무접촉도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일방적으로 연기선언을 했는가 하면,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의 1월 24일자 제의마저 거부한 사실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全大協」과 「全民聯」이나 문인단체 등 개별단체들의 극단적인 통일논의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면서 이들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을 극렬히 모략비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北韓產物을 도입하고 있는 사실마저 『허위보도로서 남북간 경제교류를 분열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생뚱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88.12.30 무역부대변인담화)라는 주장에 이어 「남조선정세통보모임」(1.18)·「남북경제회담 북한측대표단장 이성록담화」(1.21)·「조국평화통일위원회 보도」(1.12), 그리고 2월 2일자 평양방송등을 통해 『완전한 거짓말이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모략전』·『지금까지 단 한톤의 석탄이나 수산물도 남으로 간일이 없다』·『86년 남북경제회담이 중단된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간에 그 어떤 형태의 무역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상담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며 남북대화에 임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밝히고 있는 언동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같은 「기본」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7.7특별선언」이후 한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극단적인 통일논의와 함께 특히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사회적 혼란의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데서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의 증폭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식쇄신과 더불어 한국의 전쟁성 조작선전 등 평화지향성 위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서해공해상에서 우리어선의 납북이나 우리함선의 북한영해침입과 휴전선에서의 총격도발주장(제 446차 정전위본회담, 2.13) 등은 그러한 책동의 일환인 것이다.

남북간에 여러갈래의 대화를 수차례 거듭해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현상은 북한의 대남공세에 있어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다시말해 「대화」는 대남공세의 한 형식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은 바로 평화의 위장아래 자행되고 있는 대남도발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식적 남북대화 통로는 외면하면서 일부 극단적인 통일논

의에 편승하여 정부당국을 그 방해와 탄압자로 모략함으로써 반정부감정의 확대와 사회혼란의 심화에 대남공세의 초점을 두고 있는 책동, 그것은 바로 평화를 가장한 대남도발의 내용이기도한 것이다.

(내외통신 631호, '89.3.17)

◎北韓,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의 連帶性 強調

〈發表要旨〉

- 金日成은 南朝鮮의 各계各층 人민들이 政治的 自由와 權利를 爭取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敎示하였음.
- 社會的 轉變을 위한 鬪爭에서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基本階級인 勞動階級을 비롯한 勤勞人民大衆의 連繫와 共同鬪爭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南朝鮮 大衆運動 發展에서의 새로운 趨勢임.
- 南朝鮮 勞動者들이 참다운 생존권을 위해서는 經濟鬪爭과 함께 政治鬪爭을 적극 벌여 自主·民主·統一을 爭取해야 함.
- 南朝鮮 青年學生들속에서 제기되었던 自主·民主·統一의 구호는 80년대에 民衆이 主體가 되어 民族統一, 民主爭取, 民衆解放을 실현해야 한다는 3民 理念으로 정립되어 勞動階級을 비롯한 各階層 人民들의 支持로 共感を 불러일으켜 광범한 人民들이 共同의 鬪爭理念으로 되었

음.

- 南朝鮮 勞動階級은 단순한 처지개선을 위한 지난날의 경제투쟁으로부터 社會 政治生活의 民主化를 위한 투쟁에 적극 진출하게 각성되었음.
- 青年學生들과 勞動者들의 共同鬪爭은 앞으로 계속 昂揚될 趨勢에 있으며 이것은 南朝鮮 情勢發展을 규정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勞動新聞論說, 89. 3. 15)

〈評 價〉

- 最近 韓國內에서 學園騷擾, 勞使紛糾등이 빈번하자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이를 고무 찬양하고 있는바, 이번 勞動新聞의 論說도 이와 같은 일련의 對南 宣傳煽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北韓은 지금까지 國內 노사분규, 학생소요 사태등에 대해서 주로 「民民戰」放送을 통해 反美·反體制的 鬪爭煽動을 일삼아 왔으나, 금번은 勞動新聞 論說을 통해 金日成 敎示를 引用,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남선동을 한것이 特徵的임.
- 北韓이 勞動新聞 論說을 통해 勞·學 連繫鬪爭 煽動을 強調하고 있는것은 우리 內部的 春鬪 및 中間評價 政局

을 最大한 이용, 反政府 騷擾를 극대화 하려는 底意에서 비롯된 것임.

◎ 北韓의 南北對話展開樣相 分析

北韓은 최근 南北간에 제기된 일련의 南北對話들에서 兩面的인 立場과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월 8일 남북국회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던 北韓은 3월2일「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예비회담도 팀스피리트훈련과 연계시켜 공전시킴가운데 대화부진과 한반도긴장책임을 韓·美측에 떠넘기는 對南선전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對南공세는 특히 팀스피리트훈련 개사와 때맞추어 3월 11일에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보도를 통해 「전투동원태세명령」을 하달한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북한의 주요 선전기관들은 연일 팀스피리트훈련을 두고 「북침전쟁연습」·「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흉악한 도발책동」운운으로 극단적인 언동을 구사해가며 비난을 일삼았고 한반도긴장분위기를 내외에 확대선전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3월 15일에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북측대표단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도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이 『남조선반도에 새로운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직면해있다』느니 『이 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고위급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주장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월 17일에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성명을 또다시 발표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재삼 촉구하는 가운데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서 북남국회합동회의준비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남북대화 북측대표단 성명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은 팀스피리트훈련이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남북대결분위기를 南측이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북대화는 진행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함께 3월 11일 소위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북측대표단도 성명을 내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는 목적은 自主·民主·統一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무력으로 위협공갈하여 밀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군부독재정권의 위기를 수습하며 미국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왔다. 이 성명은 이어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여러갈래의 민간급 대화를 허

용해야 하며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공파쇼악법들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측 성명내용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팀스피리트89훈련을 남북대화의 장애물로 트집을 잡아 남북국회예비회담이나 남북고위당국자회담등에 대해서는 회담개최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트집으로 일관하는 한편으로 全民族大會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담성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표명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兩面的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그동안 2월 10일로 예정된 남북국회예비회담을 연기시킨데 이어 3월 2일 남북고위급당국자회담을 개최하긴 했으나 이후 팀스피리트훈련을 트집잡아 이들 회담의 성사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對南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3월 1일 범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이 한국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었음에도 이 회담개최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전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의 성명등이 구체적인 실례이다. 이와 더불어 3월 16일 북한의 작가동맹중앙위원회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한국민족작가회의가 3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작가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이에 동의를 표시하고 북측대표단 명단까지 구성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호응자세를 보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또 한국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3월 13일에 제의한 남북대학생교류회담에 대해 통지문을 보냈다. 이 통지문에서 북한은 『全大協代表들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하는 조건에서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의 회담을 3월末이나 4월初에 가져도 좋다』고 전제하고 『全大協代表들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의 회담도 할 수 없다』는 조건부 호응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3월 16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측 대표단과 「全大協」대표단간의 남북학생회담은 한국정부당국의 원천봉쇄조치에 따라 무산됨으로써 남북학생교류회담은 자연히 유산된 셈이 되었다.

북한은 오는 7월 1일 개최예정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국의 「全大協」과의 남북학생회담에 유별나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3월 16일 판문점에서 예정된 남북학생회담에 북한측은 이미 「全大協」대표단의 회담참석이 불가능하게 된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삼(金日成大學生)을 단장으로한 11명의 대표단을 회담장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등의 示威를 벌였다.

남북학생회담 북측대표단은 판문점 「성명」에서 『3.16 북

남학생회담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들은 민족반역자로서 통일의 원수로서 온민족의 저주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악의에찬 對南비난선전을 퍼부었다.

이 성명은 또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평양축전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면 「全大協」이 추진하는 우리와의 회담을 적극 떠밀어 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북측 대표단은 북남학생회담을 4월에 갖자는 「全大協」의 수정제의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때에는 「全大協」 대표들과의 상봉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고 「全大協」과의 회담성사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북한은 또 한국정부가 「全大協」의 평양학생축전참가를 위한 남북학생회담참가를 저지키로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부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편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로동신문은 16일자 論評에서 「全大協」측이 참가하는 판문점학생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도록 편의와 조건을 보장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등의 억지주장들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북한은 한국의 의회나 정부당국과의 대화채널인

남북국회에비회담이나 남북고위당국자회담등에 대해서는 팀스피리트훈련등을 구실삼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全大協」대표단과 회담을 비롯한 범민족대회소집회담, 남북한작가 예비회담등 일련의 민간레벨의 회담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양면적인 대화태도는 진정으로 남북한간의 교류및 화합과 단결을 위한 순수한 대화자세로 보기에에는 어렵고 요컨대 그들의 대남전략에 입각하여 한국의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쌍방 당국자간의 회담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대화기피책임을 벗어나는 한편 한국내의 국론과 통일논의를 분열시킬 수 있는 민간급 대화에는 적극 나섬으로서 마치 남북대화는 물론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대외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와함께 한국내의 재야단체들이나 운동권학생단체들과의 개별적 남북회담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정부당국의 주도권을 無力化시키려는 계책도 쓰고 있다. 결국 북한은 南北화합과 단결이라는 미명아래 각개격파술에 의한 남북대화를 적극 펼치면서 이른바 남조선혁명분위기성숙을 집요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632호, '89. 3. 24)

〈자 료〉 原文발취

◇ 북남학생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요지

○ 우리는 지난 13일 「全大協」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기어히 관문점 학생회담에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다시금 명백히 밝힌데 따라 남녘 學友들과 뜻깊은 상봉을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곳 개성에 왔다. 그런데 우리와 만나 함께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하자고 하던 「全大協」 대표들은 회담장에 나오지 못한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 3월 15일 「全大協」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학생회담과 관련하여 조선학생위원회에 보내는 자기들의 편지를 남조선 적십자사가 전달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남조선당국이 3.16학생회담을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조건에서 부득이 이번 회담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 결국 「全大協」이 제기하고 우리가 호응하여 마련되었던 3.16북남학생회담은 남조선 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 남조선 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가 진정으로 북남학생회

담에 관심이 있고 남조선 청년학생들을 평양축전에 참가시킬 의사가 있다면 「全大協」이 추진하는 우리와의 회담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떠밀어주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실현하지 못한 오늘의 회담을 통하여 민족분열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백배하여 통일구국의 투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북남청년학생들의 상봉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과감히 싸워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우리 북측 학생대표단은 평양축전참가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학생회담을 4월에 가지자는 「全大協」의 수정제의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그때에는 「全大協」 대표들과의 상봉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한다.

(개성, 89. 3. 16)

◎ 南北단일팀 構成과 北韓立場

— 제1차 南北체육회담 긍정 평가 —

제11차 北京아시안게임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지난 3월 9일 관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이 會談은 서울올림픽 共同開催를 위해 열렸던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결렬된지 20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會談에 북한측은 김형진 올림픽추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5명의 대표가 張忠植대한올림픽추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대표단과 대좌했다. 북한측대표로는 올림픽서기장 장웅을 비롯, 올림픽위원회 김세진·허혁필·김상부 등이 참석했다. 회담은 김형직 北측수석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측이 기조연설을 한후 쌍방간에 제시된 단일팀 구성방안에 대한 의견절충을 가진뒤 2시간 10분만에 마쳤으며 2차 회담은 3월 28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은 비교적 쌍방대표단간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진행, 단일팀團歌를 「아리랑」으로 합의하는 등의 成果를 보였다. 그리고 團旗도 바탕을 흰색으로 하며 한반도를 새긴다는데까지 부분합의를 보았다.

쌍방간에 異見을 보인 부분은 가장 민감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 호칭문제와 선수선발문제였다. 韓國측은 호칭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KOREA」와 남북단일팀을 제시했고 북한측은 우리말로 「고려선수단」이라고하며 영문자로 「KORYO」로 쓰고 약자로 「KRY」를 사용하자고 했다. 북한측은 「KOREA」는 현재 IOC에 등록된 한국의 영문표기라며 반대했고, 우리측은 남북을 함께 상징하는 말로 大韓, 新羅등도 쓰일 수 있다며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團旗중 한반도 색깔부분은 한국측이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한반도 토양색깔인 황토색이라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바탕색은 白衣民族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하자는 것과 한반도 지도를 새기는 것은 쉽게 合意를 보았다.

선수선발방법에 있어 南·北 양측은 다같이 「최우수 선수」를 뽑자는데 동의했고 북한측은 기록종목은 최종선발전 기록위주로, 체점제경기는 훈련기간동안 외국선수초청경기를 통해서, 투기, 단체종목은 국내외 전적을 고려하되 남북균형을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측 案은 선발을 위한 교환경기 실시, 선발전은 서울·평양 혹은 쌍방합의지역서 1차례이상 갖자고 제의했다.

또 선수선발시기는 북한측이 오는 8월까지 끝내고 9월부터는 훈련을 시작하고, 최종선발은 단체종목의 경우 내년 5월, 개인종목은 7월까지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 가급적 빨리하자고한 한국측과 대조를 보였다. 단장및 임원은 단장·부단장·사무장을 남북공히 1명씩 두고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규정에 따른 임원수의 남북균형유지를 주장했다. 한국측은 선수수가 많은 측에서 단장과 감독을, 적은 측에서 부단장과 코치를 말도록 제안했다. 이밖에 雙方間에 合意를 보지 못한 가운데 북한측 단장의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단일팀구성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코치(지도원)선발방법은 종목당 각기 2명씩하며 개인경기종목에서는 南北이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한 수만큼 선발할 것을 제안했고 이른바 보장성원(의사·안마사·연구사·기재관리공·배수리공·요리사)의 선발은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하기로 하며 이들의 선발시기는 오는 8월까지 끝내도록 할것을 제시했다.

훈련방법은 오는 9월부터 시작하되 종목단위로 남북을 왕래하며 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외국원정경기과 외국선수단들을 초청해서 경기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단일팀을 위한 상설기구로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며, 명칭은 단일팀 명칭을 덧붙여 부르고 쌍방에서 1명씩 파견된

사무국장 2명과 부서임원들을 두며, 사무실은 관문점 중립 국감독위원회휴계실에 두고 쌍방합의에 따라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공동사무국에서는 훈련기간 선수단이 남·북으로 왕래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훈련비용에 대한 북한측 案은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비용은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공동훈련기관의 일체 비용은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부담하고 외국인 정경기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준비를 시키다 출발시키는 측에서 부담토록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신변안전 담보는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하고 단일팀 복장과 휴대품·기재등의 형식·색깔등은 공동사무국에서 결정토록 했다. 또한 단일팀의 출발과 도착지점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식을 높여 주도록 북과 남에 공평하게 정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측수석대표 김형진은 이같은 단일팀 구성방안을 제시하면서 『북과 남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며 남측이 내놓은 案들도 충분히 고려한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측이 이처럼 비교적 구체적 단일팀구성방안을 제시하며 제1차 회담에서 團歌를 아리랑으로 하고 團旗에 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볼 때 일단은 순조로운 회담전망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간에 실질적인 회담결실을 맺기 까지에는 적지않은 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우선 單一팀 호칭문제에 있어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고 있고 북측이 제시한 선수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대목이 있어 북한측의 속셈이 무엇인지 어림잡기 쉽지 않다.

이번 1차회담에서 團歌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나 이는 이미 지난 1963년 동경올림픽에 남북단일팀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회담을 가졌을때 합의된 사항이다. 이 당시에도 1차회담에서 단가를 포함해 선수선발문제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2차회담에서 부터는 가장 예민한 문제인 호칭문제를 비롯, 예선장소·일시·훈련문제·인원구성 등에서 難航을 거듭하던 끝에 3차 회담시에 북측이 한국측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중상하는 등의 무성의를 보임으로써 무산되었다. 북한은 또 1979년 2월 35회 평양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 출전시키자고 제의, 한국측이 이에 호응해 4차에 걸친 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졌으나 한국선수단의 입국보장을 거절함으로써 결렬되었다. 이와함께 84년 LA올림픽에 한국측에서 단일팀 출전을 제의했을 때도 북한은 2개월 뒤에 「조국전선」 67차회의를 개최,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어 통일방안을 논

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한국이 제기한 『국제경기단일팀문제도 전반적 합작과 교류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와 사실상 거부했다.

최근의 사례로 지난 85년 10월 IOC의 중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남북체육회담 이후 88년 7월 4차회담에 이르기까지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문제를 논의했지만 북한측은 IOC현장에도 위배되는 억지를 부리다 끝내 서울올림픽에 不參하는 태도를 드러냈었다.

이러한 전례에서 보여주듯 북한측은 남북간에 단일팀문제가 제시될 때마다 처음에는 선뜻 호응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도 막상 실천단계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세워 발뺌을 하기 일쑤였다.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진은 이번 회담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선수선발원칙에서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원칙에서 선발한다』는 애매모호한 의미부여를 하고 나왔다.

또한 기조연설 서두에서도 『쌍방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에 기여하려는 자세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국통일 3대원칙을 떠난 체육문제 해결이란 사실상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공언했다. 북측 수석대표의 이같은 발언내용은 체육교류문제를

다분히 정치적 事案으로 다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서 체육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南北간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북측의 태도변화가 예측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우기 북한측으로서는 南北단일팀이 구성되게 될 경우에 안게될 부담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측이 주장한대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단을 구성하는 원칙하에 선수선발을 하게될 경우 南측에 비해 종합적인 전력이 뒤떨어지는 北측으로서는 勢不利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북한측 수석대표가 선수선발 원칙항목에 끼워 넣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원칙』운운한 것도 기실 북한선수 임원을 더 많이 참가시켜 보려는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單一팀 구성을 계기로 북한측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선수선발과 훈련과정에서 불가피하게 南北간의 체육인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南北간의 전력비교는 물론 체육시설과 사회환경이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고 북측 선수단은 폐쇄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사회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은 不問可知의 일이다. 이처럼 북한의 체육인들이 南北실정에 새로운 눈을 뜰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경우 북한측으로서는 體制的 부담까지 안게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같은 부담을 의식하고

있는 한 남북단일팀 구성문제가 진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難航이 예상된다.

(내외통신 631호, '89.3.17)

역대 南北單一팀 구성 위한 회담일지

● 제18차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 회담

1) 제1차 회담(1963. 1. 24 스위스 로잔느)

토의내용 : 국가문제 (아리랑으로 합의), 임원선수선발
문제(동·서독방식에 따르기로 합의), 국기문
제(미합의)

참석자 : 한국(김진구 대한체육회 이사외 4명)

북한(김기수 NOC부위원장의외 4명)

IOC(모하메드 타헤드)

2) 제2차 회담(1963. 5. 17-6. 1 홍콩)

토의내용 : 합의사항(전종목 예선실시 및 재정부담)

미합의사항(호칭, 예선장소, 일시, 훈련문제
등)

참석자 : 한국(정상윤 KOC위원외 5명)

북한(김기수 NOC부위원장의외 10명)

3) 제3차 회담(1963. 7. 26 홍콩)

토의내용 : 북한측 단장 김기수, 한국측에 대해 회담부

진 책임전가 및 비방중상

한국측 대표단, 북한측에 대해 공개사과 및
해명요구 후 회담결렬

● 평양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회담

- 1) 북한체육지도위원장 김유순이 1979년 2월 20일 제35회평양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통일팀을 구성, 참가하기 위해 남북한체육인회담을 열자고 제의
- 2) 회담일시 및 장소 : 1979년 2월 27일 - 3월 12일 (4차 회담후 종료) 판문점
- 3) 회담결과 : 북한은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통일팀 구성과 별도로 한국선수단이 개별팀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입북을 우선보장하라는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4차회담후 결렬

● LA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회담제의

- 1) 제의일시 : 1981년 6월 19일
- 2) 제의내용 : 대한올림픽위원장겸 대한체육회장이 84년 LA올림픽과 가능하면 그 이전에라도 각종 국제경기 대회에 남북한단일팀 참가를 북한측에 제의
- 3) 북한측 반응 : 북한은 81년 8월 「조국전선」 제67차회의를 통해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열고 단일팀 참가문제도 전반적 합작과 교역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거부.

Ⅱ. 共產圈 및 周邊動向

- 最近 蘇聯 및 東歐圈內 政治民主化 動向
- 中·蘇 外相會談의 開催結果
- 고르바초프 쿠바訪問 動向
- 하와이大學主催 國際 學術會議 “韓半島 問題”
論議 動向

◎ 最近 蘇聯 및 東歐圈內 政治民主化 動向

共產圈國家들의 改革政策이 점차 加速化되고 있는 가운데, 蘇聯 및 東歐圈國家들(헝가리, 폴란드, 유고등)은 맑스·레닌주의 비판과 함께 社會主義 體制의 根幹인 「共產黨 1黨支配」制度를 「複數政黨制」로 改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무드를 타고 中國 黨機關紙 人民日報는 이례적으로 「政府批判 論壇」을 新設하는가 하면, 蘇聯에서는 스탈린 비판을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비판으로 連繫시킬 것을 주장하는 理論이 발표되어 전세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政治民主化」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부 東歐國家 및 中·蘇의 政治民主化 움직임은, 「政治改革」을 위한 政治民主化의 불가피성이라는 共通認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經濟改革을 추진하는 여타 共產國家들에게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나, 40여년간 「主體思想」이라는 경직된 유일사상체제하에서 커다란 정치변화 없이 經濟開放만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東歐圈國家처럼 장차 이러한 政治民主化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폴란드·東獨 등 東歐圈國家內에는 共產黨 이외의 다른 政黨이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共產黨과 路線을 함께 하는 姉妹政黨으로서 명목상으로만 複數政黨制度를 채택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최근 共產國들의 政治民主化 동향을 보면 우선, 일부 東歐共產國들의 「複數政黨制」 導入試圖를 들수 있겠다. 즉 헝가리의 社會主義 勞動黨中央委 全體會議은 지난 2月11日 현재의 1黨獨裁體制를 2차대전 직후까지 운영되었던 複數政黨制로 還元할 것을 공식결의하고 있으며 폴란드 總理인 미에치스와프 라코프스키 또한 앞으로 폴란드가 複數政黨制를 허용할 방침임을 2月11日 발표하고 있다.

또한 유고의 슬로베니아 共和國에서는 지난 2월16日 1946년의 共產黨 執權以來 최초로 正式野黨인 社會民主黨이 創黨大會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정치민주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蘇聯 社會主義 理論家인 알렉산더·티프코 역시 蘇聯月刊誌 「科學과 生活」(’88.11~’89.2)에 맑스·레닌주의 批判論文 「스탈린主義의 起源」을 發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과학과 생활」지에 티코프가 발표한 논문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科學과 生活 論文要旨〉

첫째, 스탈린주의의 잘못은 스탈린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론적 근거로 삼았던 맑스·레닌주의에서 연원을 찾아야 한다.

둘째, 스탈린은 개인적 권력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확립되어 있던 여론에 따라 소련사회의 구조와 국민 생활을 개편,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그러나 스탈린을 비판하는 많은 논문과 저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세째,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의 중대한 범죄의 하나로서 「농장집단화」를 지적하면서, 이론은 옳았으나 스탈린의 방법이 나빴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르바초프 정권은 왜 「貨貸請負制」를 장려하고 있는가? 문제의 본질은 방법이 아니라 이론자체에 있는 것이다.

네째, 당시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농장집단화에 응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해 왔다.

마지막으로 스탈린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소련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러시

아 혁명과 사회주의, 맑스주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바, 이제는 자기 위선을 버리고 최후의 금기까지 철저히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등이다.

◎ 中·蘇 外相會談의 開催結果

지난 2月1日부터 4日간 中國을 訪問한 「세바르드나제」 蘇聯 外相은 鄧小平 中央軍事委 主席과 이붕 首相 그리고, 전기침 外相等 中國內政治指導者들과 연속회담을 통해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兩國 頂上會談 개최문제를 비롯한 雙務懸案 및 캄보디아 문제를 중심으로 한 地域紛爭 解決 등 共同關心事에 관해 폭넓게 論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月4日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北京 國際클럽에서의 記者會見을 통해 中國側과의 協議內容을 公表한 후 파키스탄으로 떠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세바르드나제」 蘇外相의 記者會見 內容의 要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관심이 쏠려있는 中·蘇 頂上會談問題에 있어서는 『鄧小平과의 上海會談 主議題는 中·蘇 頂上會談이었으며, 鄧小平은 頂上會談의 主目的이 과거의 章을 덮고 미래의 章을 여는 것으로만 믿고 있다』고 밝히면서 如斯한 思考는 모두가 蘇聯 指導者의 意圖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첨언하면서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오는 5月中旬

頂上會談을 위해 訪中할 것인 바, 구체적 일정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中國官營 신화사通信은 2月6日 同 書記長이 5月15日부터 18日까지 中國을 公式 방문할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하면서 보도하고 있다.

다음 中·蘇關係의 현안문제에 대해 兩國 指導者는 中·蘇關係의 완전 正常化에 頂上會談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고르바초프」 書記長 訪中 프로그램에는 鄧小平·이봉首相·조자양 黨 總書記와의 會談이 들어 있는 바, 이는 兩國 共產黨間 接觸의 復活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中·蘇의 政府·黨間 關係正常化는 餘他 국가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國境地域 緊張緩和問題에 대해서는 中·蘇 頂上會談이 國境地域 緊張緩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兩國 외교관·군사전문가들은 아마도 5月 頂上會談 以前에 會議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國境隣近地域에서 실질적으로 절대적 信賴霧圍氣 조성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어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서는 兩國은 베트남이 캄보디아와의 協議下에 철수시기를 분명히 한 점을 환영하며, 兩國은 캄보디아紛爭의 國際的 統制 및 해결에 관해 거의 모

든 부분에 합의했고 政治的 解決後 모든 分派에 대한 武器 供給 中斷에도 합의했음을 밝히면서, 兩國은 앞으로도 캄보디아문제 토의를 계속할 것이며 兩國의 各 세력들이 合意點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軍縮問題에 있어 蘇聯側은 攻擊的 蘇聯兵力 減縮 및 規模面에서 既 削減된 部隊들의 解體를 提案하는 등 다분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였으며, 兩國은 軍事訓練의 規模·回數減縮 및 特定 地域內 軍隊水準을 提高치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론 시간이 걸릴것이나, 兩側은 國境地域 軍隊移動에 관한 通告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견해를 표시하였다.

蘇聯은 向後 2年間에 걸쳐 일방적으로 東部地域에서 蘇聯軍 20萬名, 남부지역에서 6萬名을 철수시킬 것임과 아울러 蘇聯은 蒙古駐屯 蘇聯軍 75%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中國 역시 自國兵力을 일방적으로 減縮하고 있는 바, 中·蘇 兩國이 如斯한 일방적 조치를 두려워 하지 않고 있음은 좋은 일이나, 이러한 조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兩國外相會談에서 論議된 문제중에서 우리의 관심

을 끄는 것은 세바르드나제가 등소평과의 會談은 友好的이고 實務的인 雰圍氣에서 이루어졌으며 등소평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매우 賢明한 人物이었다고 극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아무튼 금번 外相會談을 통해 兩國은 中·蘇 頂上會談 時期를 確定, 지난 59年7月 「흐루시초프」·모택동間 北京會談 以後 30年만에 兩國 首腦會談을 成事시켰다는 점에서 「세바르드나제」 蘇外相의 이번 訪問은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특히 이와같은 中·蘇關係 急進展은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에 따른 改革·開放政策과 등소평의 實用主義政策路線이 國益次元에서 相互 接合된데 起因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中·蘇 兩大 社會主義國家가 50年代 同盟關係 復元까지는 아니더라도 善隣友好關係를 回復, 黨·政府관계의 全面 正常化를 追求함으로써 國際力學構造上的 變化를 招來 특히 亞太地域에서 中·蘇의 立地가 相對的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날이 갈수록 「閉鎖와 孤立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北韓의 「自主路線」外交가 그동안 中·蘇사이에서 「줄타기」식 외교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왔지만, 향후 改革·開放의 적지않은 과고가 北韓內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르바초프 쿠바訪問 動向

고르바초프 書記長은, '74年 브레즈네프의 쿠바訪問 이후 蘇聯 最高 指導者로서는 15年만에 처음으로 쿠바를 訪問(4.2-4.5), 頂上會談, 友好協力, 條約締結, 그리고 「혁명 수출의 포기宣言」이 담긴 議會演說등의 日程을 마치고 英國으로 떠남.

고르바초프, 쿠바 議會演說 要旨(4. 4)

-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며, 우리는 혁명과 반혁명의 수출 또는 주권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한 어떤 종류의 외세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나 독트린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 중미 분쟁은 평화적,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요한 조건은 모든 나라가 이 지역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지하는 것이다.
- 미국이 중미국가들에 무기를 제공하는 한 소련도 니카라과 정부에 무기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소련은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며 자본주의 국가들도 그들의 체제를 지킬 것이다.

○소련식의 「개혁」이 쿠바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보편적인 처방이 되지는 않는다. 모든 국가가 스스로 주권의지에 따라 선택한 방향을 따르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 한지도 역사와 생활 자체가 판단하도록 맡기자.

금번 쿠바訪問과 관련하여 特記할 事項은,

○訪問하루 前, 카스트로 쿠바 國家評議會 議長은 記者會 見을 통해 『소련식 개혁이 쿠바엔 맞지 않으며,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發言하고, 며칠후 頂上會談에 서는 蘇聯의 改革에 대해 냉소적 反應을 보였다는 점.

○때마침, 北韓이 종래의 불만스러운 「관망」 態度를 바꾸어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우리 정책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許鏞의 記者會見(3.23)과 『북한은 소련식의 개방정책이나 중국식의 경제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北韓 對外連絡協會 代辯人 記者會見(4.2)內容이 잇달아 發表된 점.

○이처럼 共通的으로 「경제난」과 「주체적 해결」, 敎條的 혁명 路線을 고집하고 있는 카스트로·金日成이, 고르

바쵸프로부터 「개혁의 자율적 선택」을 허용받고 있기는 하지만, 혁명 이데올로기만큼은 蘇側의 立場과 明白한 意見差異를 보인점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음.

※카스트로의 記者會見 要旨(4.1. 오스트리아, 디 프레세)

『야자수가 소련에서 자랄수 없듯이 쿠바의 사회주의는 소련의 그것과 똑같을 수 없다. 쿠바는 스탈린주의의 과오를 고칠 필요가 없다. 쿠바에는 스탈린주의의 과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과오가 있기는 하나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參考

북한의 『개혁』문제 언급경위

- ① '88. 7. 13. 김일성, 중국전인대 대표단과의 면담
 - 중국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며, 중국이 안정과 통일속에서 성공적으로 건설·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국력을 강화했다.
- ② '88. 8. 15. 김일성, 해방 45주년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기념메세지
 -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전반적인 국제 안보체계 수립 그리고 군축을 실현하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려는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 ③ '88. 12. 23. 김일성, 세바르드나제 蘇外相과 면담
 - 소련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주시해 보겠다.
- ④ '89. 3. 23. 허담(조평통위원장) 로마에서 기자회견
 - 우리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거나 우리 정책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 최근 多黨制를 허용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권력장악을 종식시킨 헝가리는 공산주의 원칙을 포기했다.
- ⑤ '89. 4. 2. 강종일(대외연락협회 대변인) 기자회견

- 북한은 소련식의 개방정책이나 중국식의 경제 개혁을 필요로하고 있지 않으나 언젠가는 對西方 부채를 청산할 방침이다. 북한은 여타 공산국가들의 개혁정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개혁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 대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 주석이 설정한 독자적인 국가경제의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중요 동력·토지개발 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외채상환은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정치적·이념적 이유때문에 외채지불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 북한이 빈곤한 경제를 이어받았으며, 따라서 단기간에 외국의 경제수준을 따라 잡는 일은 큰 부담이다.
- 경제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중국이나 소련처럼 서방차관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외부에 의존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제 4차회의 기간중 외신기자 회견)

◎ 하와이大學主催 國際學術會議 「韓半島問題」論議 動向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하와이大學 平和研究所 主催로 열린 「韓國과 印度支那 등 亞·太地域의 平和와 安保」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서, 中國側 代表가 韓半島 問題 解決을 위한 「5者會談」(南·北·美·中·蘇)을 提案했는가 하면, 蘇側 代表는 「4者會談」(南·北·美·蘇)을 主張, 그 동안 北側의 「3者會談」을 公式 支持해 오던 종래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번 會議內容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우선 北側은 종전의 主張과 함께 1995년까지 「1國家 2體制」의 聯邦制統一 實現을 주장하고 있으며 中國은 南·北 韓 軍縮會談의 北京開催와 韓半島 問題論議에서 日本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蘇聯은 韓半島 問題 해결을 위한 美·蘇間 對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日·中國을 배제한 「4者會談」을 提案하고 있는바, 금번 會議에서 中·蘇 兩國은 이전보다 더욱 積極的이고 競爭的인 차원에서 韓半島問題 介入意思를 밝히고 있는 점이 특이할만하다 하겠

다.

今番會議에 參加한 北側代表는, 송호경(사회과학원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윤종성(同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현철(同연구소 선임연구원)등인바, 이중 宋과 李는 '87年12月 스탠포드大를 訪問했던 學者들이며, 이들은 今番會議後 또 다시 스탠포드大를 방문, 同大學 國際戰略研究所長인 존·루이스가 지난 88년 10월 약속했던 대로, 美·北韓 學者會議에 참석하고 있다.

同 學術會議 발표내용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北韓의 송호경(사회과학원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은 北韓의 포괄적 平和案 受諾促求, 休戰協定の 平和協定 대체, 南·北韓 平和會議의 早期實現을 주장하면서 駐韓外軍 撤收, 南·北 雙方의 漸進的 軍縮으로 1991년까지 軍備縮小 完了, 「汎民族 代表者會議」開催, 1995년까지 「1 國家 2體制」의 聯邦制를 骨格으로 하는 統一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종전에 주장해 오던 3者會談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不可侵宣言採擇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中國側 대표로 참가한 國際信託公司 國際研究所 副所長인 「화디」는 北韓이 南韓보다 더 개방된 사회이며 팀스피리트 中斷과 休戰協定の 平和協定 代替를 주장하면서

韓半島 軍縮을 위한 南·北韓 代表會談의 北京開催를 提議하고 있다. 또한 中國의 「빙웨이」(同研究所 亞·太 研究主任)는 1990년 北京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팀스피리트 訓練 中止宣言을 要求하면서 「東北亞 平和協議會議」에 日本을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실수이며, 日本은 36年間の 植民統治로 韓半島 分斷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除外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해 南·北韓과 美·中·蘇가 參與하는 「5者會談」을 提案하고 있다.

이어 蘇聯의 「이바노프」(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 太平洋 研究部長)는 韓半島內 核武器와 美軍 撤收가 問題解決의 前提라고 밝히면서 全 亞·太地域의 非核地帶가 필요하며 美·蘇 두 強大國이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이제는 對話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南·北韓이 참여하는 「4者會談」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美國의 저명한 南北韓關係 專門家인 「스칼라피노」(버클리大 東亞研究所長)는 中國·臺灣, 東·西獨 關係같은 現實에 立脚한 關係 定立을 강조하면서 南韓의 北方政策은 앞으로 큰 進展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北韓은 南韓의 協力下에 市場經濟原理의 導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끝으로 韓國 代表로 참가한 兩 교수(한승주, 안병준)는 그들의 발표論文을 통해 南·北韓 信賴回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統一時까지 모든것을 保留하는 極端的인 態度는 다분히 非現實的이며 韓·中國 交易量이 北韓·中國 交易량을 훨씬 능가하고, 中國人의 韓國訪問이 急增하는 현실에 비추어 南韓의 개방이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Ⅲ. 資 料

- 文牧師 訪北關聯 問題性 言動事例
- 최근北韓의 宗教實態와 政策
- 北韓 最高人民會議 豫·決算案 分析
- 85년후 北韓의 主要軍事動向 및 戰略強化實態
- 南北對話 機構의 性格과 機能
- 平壤 FM방송의 正體
- 北韓·蘇聯間的 經濟協力實態
- 最近 南北韓 交流 및 “當局間會談”에 對한 國外反應

◎ 文牧師 訪北關聯 問題性 言動事例

- 문익환씨의 입북(3.25)에서 귀국시(4.13)까지의 言行은 北의 사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채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된 것이었음.
- 『북한은 군사화 되지 않은 땅이며 여기 모든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문익환씨는 北의 실정을 모르고 있음.
 - 또한 평양과 북경에서는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남한을 민중통일론의 관점에서 비난하다가 동경 기자회견과 간담회에서는 『아마도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통제된 국가일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언동을 보였음.
 - 특히 北의 當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자신간에 이루어진 9개항의 합의서에 대해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명했다』는 언동은 민중의 대표를 자처하는 문익환씨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임.

○다음은 문익환씨의 평양도착성명(3.25)에서부터 귀국기 내 기자회견(4.13)까지의 문제성 언동을 간추린 것임.

1. 平壤到着聲明(3.25)

○『저는 오늘 김구선생이 걸으셨던 같은길을 걸어... 그때 김구 선생의 느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느낌이라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김구선생과 같은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자처.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시.

○『분단의 치욕을 씻으려고 남쪽 민중인들은 독재세력과 막강한 군사세력 경제력을 구사하는 외세와 싸워 이제 마침내 도달하지 않으면 아니될 운명적 기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처럼 매도하고 민중 통일 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 것처럼 상황을 왜곡.

○『나는 꼭 오래전부터 한번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흥금을 열어놓고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기탄없는 대화를 교환할 수는 없을까? 간절한 염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설날 즉 1989년 정월 메시지를 통하여 김일성 주석께서 한번 평양을 방문해 보라는 초청을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김일성을 존경했다는 의미가 분명함.

※북한의 정치협상회의에 동조한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 차원에서 신비적으로 미화.

○『김일성 주석과 더불어 서로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뜨겁게 부둥켜안고 민족의 빛나는 미래에 대하여 서로가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 한다는 것 이것에 상징적인 뜻을 생각하는 것뿐 만으로 저는 기쁨과 가슴의 고통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을 만나 통일문제를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 평양방문이 목적과 의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통일노력을 감상적으로 처리.

○『우리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운동주의 말,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김일성 주석 동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공산화통일, 무력통일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통일지상주의적 통일관 피력.

2. 祖平統 文益煥 歡迎宴會 演說(3.25)

○『나의 어머니는 지금 95살인데 얼마전에 남북의 기독교 인사들이 1995년을 통일의 기년으로 삼자고 결의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100살이 되는 해인 1995년까지 사시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통일이 온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은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까지 통일해야 한다고 이미 공언.

※KNCC도 스위스 글리온 남북기독교인 공동성명에서 1995년을 통일의 기년으로 선언.

3. 봉수教會 復活節예배(3.26)

○ 3.26 평양 봉수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문목사는 북한목사와 함께 설교하였는 바, 북한목사는 부활의 의미등에 대해 설교다운 설교를 한 반면, 문목사는 노동자의 해방, 민중·민주통일 운운하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말만 하였고, 문목사는 찬송가보다 더 좋은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노동쟁의 및 학생데모때 부르는 구호같은 선동적인 노래를 하였음.

※문목사와 같은 시간에 평양 봉수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재미 이동원 목사와 침례교회 신도들이 종교
인답지 않은 문목사 태도비난.

4. 平壤記者會見(4.2)

○『우선 제가 어리둥절 합니다. 기자회견 많이 해봤는데 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많아야 한 10여명 정도의 기자들앞
에서 회견을 하는 그정도 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
리에서 전세계에서 모여온 기자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회견을 하게 되니까 시골에서 온 닭이 큰장에서 어리둥
절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벌여놓은 대외선전장을 자신의 환
대로 착각.

○『제가 처음에 올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
셨던 김일성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냉엄한 남북대결의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감상적인
대북관, 통일관의 일단을 보여줌.

○『이번에 제가 평양에 와서... 주석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
들을 만나서 같이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 하는 동안에 인
제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

에 이르는 내 조국의 일원이다, 그런 자격을 획득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부인하고 김일성과의 대화만으로 마치 통일이 이룩될 수 있는양 극화.

○『북한은 군사화되지 않은 땅이며 여기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평양발 AFP, 4.2)

※북한은 스스로가 4대군사노선의 완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해 왔음에 비추어 북한당국자만 만나보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의 비약.

○『가서 잡아 넣으면 문목사 민족문제 풀려고 평양에 갔다 왔는데 왜 집어넣었어 하고 인민들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구속을 민중봉기 유발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저의 입.

5. 北京記者會見(4.4)

○『북쪽의 민간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쪽의 민간단체인 전민련 상임고문인 나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충분한 이야기와 폭넓은 합의를 봐 나로서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노출 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는 권력핵심의 당국임.

○『북쪽을 조선이라 하고 남쪽을 한국이라 했는데 조선일
보 기자가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한다는 것은 남쪽에도 조
선이 있다는 증거이다.』

※한반도 전체의 정통이 북에 있는양 하는 발언.

○『김주석을 포용할 때의 감정이란 무어라고 다 말할 수
없다. 이제 정말 40여년에 걸친 민족의 치욕을 벗고 통
일의 길을 여는 일을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6.25 남침전쟁의 도발자인 김일성과의 포용 하나로 통
일의 길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된양 흥분.

○『나는 통일을 외면하는 민주도 있을 수 없고 민주를 외
면하는 통일도 있을 수 없으며 자주만 있고 민주와 통일
이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없으며 통일과 민주를 외면한
자주 또한 없다고 생각해 왔으며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북한의 남조선 적화혁명 논리인 [자주], [민주], [통
일] 주장에 영합하고 이를 극찬.

6. 北京—東京 機上記者會見(4.5)

○『그는 나에게 「전에 오스트리아 수상이 평양에 왔을때
본인은 중립통일을 이룬 당신 나라가 정말 부럽다」고 들
려 주었다. 이는 김주석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논리의 엄청난 비약임.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헬기로 갔을 때 만약 군사시설이
있었다면 창문을 가리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일이
없어서 이곳이 평화적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무지 폭로.

○『돌아갈때 만이라도 판문점을 거치려 했으나 김주석이
신변문제를 들어 강하게 만류했다.』

※김주석의 말은 받아들이고 우리정부의 말은 무시하는
태도.

7. 滯日時 記者會見, 懇談會 發言(4.5—4.12)

○『김주석이 <노태우대통령>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 남
한의 현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김일성은 과거 필요시 朴·全 전직대통령에게도 대통
령이라고 호칭.

※공식적으로 북한이 남한정부를 대화상대로 배제한다는 말을 한 일이 없음.

○『나는 반미를 위한 반미를 하지 않는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모든 나라를 우방으로 만드는 것이 과제다.』

※자신의 반미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의 유희

○『북쪽의 고려연방제와 나의 연방제 통일의 차이점은 북쪽 방안이 단번에 2개 자치정부를 기초로한 연방제인데 반해 나의 방안은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평양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합의한 9개항의 공동성명 내용과 배치.

※북측 방안의 전제조건을 고려할 때 문목사의 방안과 북의 방안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단번에」, 「점차적으로」 등의 절차문제가 아님.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조만식선생 등 민족주의자와 현준혁, 박헌영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종파분자로 몰아 제거한 장본인이며 또한 계급을 위해 민족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임.

○『사실 인민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민중의 대표자라 자처하면서 북한권력 핵심만 만나고

민중을 만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

○『합의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명했다.』

※무책임성과 아울러 정치현실에 대해 백치임을 스스로 드러냄.

○공동성명에 민주화 원칙이 빠진 것과 관련, 처음에는 들어갔다고 하다가 『그것은 내 심정으로 당연히 전제된 것이었기 때문에 항목화 하지 않았다.』

※자기 주장의 반영없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동조한 것을 시인.

○『이런 엄청난 파동이 일어난 것 자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로 생각한다.』

※통일문제에 관한 국론분열을 성과로 착각

○『평양공항에서 배포한 도착성명은 정경모씨가 미리 초안을 잡았어요. 그 초안을 놓고 내가 몇군데 손질을 했는데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어요 「존경하는」이란 표현은 의례적인 것이고요』

※책임회피성 황설수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책임성을 다시한번 확인.

○『북에서 김주석을 「존경하는 수령」이라고 부르고 김정일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높여주는데 대해

거부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 했으나 참았습니다.』

※북한체제 무비판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의식한 책임 회피성 발언.

C『학생소년궁전 연극에서 아이들이 눈물을 펴펴 쏟는 것은 그 만큼 통일교육을 시킨 때문이다.』

※학생소년궁전은 학생들에게 1인1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곳임을 모르고 공산주의식 세뇌교육에 대한 무지를 표출.

※남쪽의 이념교육을 분단교육이라 하고 북한의 사상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왜곡.

○『나는 김일성이 주석으로 있는 동안 통일을 이룩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러나면 상당기간 과도기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는 통일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김주석은 자신이 통일에 기여한 지도자로 물러나서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생존에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북한의 적화통일 시기론 동조.

※우리의 상식적 견해로는 오히려 김일성이 통일에 장애

요인.

○『물론 6.25와 광주사태는 스케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으나 역사의 매듭을 풀려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을 들춰낸다는 것은 매듭을 풀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6.25 남침을 통일노력으로, 광주사태는 민주화 노력으로 단순화시켜 같은 차원에서 보고있는 주관적 견해.

○『북한에 가기전에 동경에 왔을 때 이원경주일대사를 만나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편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잘못하면 방북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 그대로 가면서 편지를 부쳤던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부의 사전양해 없이 갔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나의 그런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성 시인.

○『북에 가보니... 그쪽은 완벽한 통제사회였으며, 아마도 북한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통제된 국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북을 동질화시켜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란 것을 재확인했고 연방제 이외에 다른 통일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혔던 것입니다.』

※체제와 이념이 완전히 다른 남북한을 통일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연방제와 같은 상부구조의 통일만을 역설. 이같은 통일방식은 정치적 가공구조만의 통일로 남북의 주민들에게 생활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단극복 노력은 외면하는 것임.

이는 문씨의 민중통일 논리와 배치됨.

○『나는 흥분한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것처럼 냉정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소년궁에 갔을 때 어린이들이 눈물을 펄펄 쏟는데도 나는 눈물 한방울 안흘렸습니다. 민족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흥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평양도착 성명발표시, 김일성과의 대화 및 포옹시, 평양·북경·동경에서의 기자회견 등에서 보여준 흥분된 처신과는 정반대의 발언임.

○『나의 방북은 시적 투시력과 정치적 리얼리즘이 합쳐진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서 오는 「계시에 의한 행동」을 현실정치에 접목시킨 것처럼 표현하며 행동을 합리화.

○『상대를 믿기전에 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주석은 나와 얘기 하는 일곱시간 동안에 적어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

며, 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느꼈습니다.』

※노회한 독재자 김일성에 대한 나이브한 감상주의자 문씨의 주관적 인물평가.

- 『김주석과 마주 앉은지 한시간만에 큰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정치회담과 동시에 모든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합의는 그동안 군사·정치의 해결없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북의 주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 아닙니까.』

※김일성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자신의 동조를 남북간의 합의로 착각.

- 『북한 체류시 김일성과 대화를 하느라고, 북한의 많은 것을 보지 못해 잘모르겠다.』

※「여기있는 모든 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 등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에 대한 즉흥적인 찬양 발언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시인.

8. 歸國聲明(4.12)

-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귀엽게 뛰어 노는 천진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통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눈이 번쩍 빛나면서 애타는 얼굴로 저의 손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북한 체류시 『민중들은 만나보지 못했다』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하는 앞의 말들과 스스로 모순되는 발언.

9. 歸國 機上記者會見(4.13)

○“북경에서 부터의 일련의 회견을 통해 국민들로 부터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근거없는 자기도취적 발언.

○“반성은 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는다.”

※문씨는 자신의 방북이 본질문제에 있어서는 옳고, 절차에 있어서는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합리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합리화 될 수 있다는 발상.

◎ 최근 北韓의 宗教實態와 政策

제6공화국 수립이후 국내 종교계의 대북종교활동이 활발해지자 북한도 이에 편승,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주요 종교활동은 불교계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 천주교이다.

먼저 불교계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해 음력 4월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휴전이후 처음으로 묘향산 보현사에서 대법회를 갖인바 있고 7월에는 金正日 지시에 의거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해석한 「해제본」을 출판했다고 선전한바 있다.

전25책으로 된 팔만대장경 해제본은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수년간 걸쳐 완성시킨 것인데 이 해제본 편찬시 내렸다는 金正日의 지시는 ① 원본을 최대한 살릴것 ② 경전단위 내용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경전매권은 요약하여 알기 쉽게 할 것 ③ 해제시 주관적, 비판적 분석을 하지 말 것 ④ 사전류 목록류등 불교관계 자료들은 정단위로

간략하게 소개 할 것 등이다.

이처럼 불교계의 움직임과 불경해석은 모두가 金正日의 특별한 지시와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활동에 대한 정책변화도 金正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금년들어 불교계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불교에는 4대 기념일로 손꼽는 음력 12월8일 「새존 성도일」을 맞아 평양시에 위치한 용화사를 비롯, 전국 사찰에서 승려, 불교신도, 불교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기념법회가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성도일(成道日)법회를 개최하면서 설법을 통해 「북과 남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팀스피리트훈련중지」, 「정치협상회의 성사」등을 거론하고 있고 「두개 조선 조작책동 반대」, 「연방제 통일방안지지」등 정치선전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 순수한 불교행사라기 보다는 불교행사를 위장한 정치집회의 성격을 풍기고 있다.

지난 1월20일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국통일 기원법회」를 갖었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전통불교의식인 三歸依로부터 시작하여 불교예식과 설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황병태는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정치협상회의 지지」, 「고려연방제 찬양」등 변함없는 정치선전을 벌린바있다.

다음 기독교계의 움직임을 보면 지난해 10월 평양시내에 약4백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건설했고 평양을 비롯한 전지역에 5백여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여기에서 예배를 보는 신자만도 1만여명에 이른다고 선전하고 있다한다.

북한의 천주교계 활동은 지금까지 존재조차 확인할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던 것인데 지난해 6월30일 조선천주교도연합회를 결성, 천주교활동을 본격화했고 10월에는 평양에 천주교성당을 완공했다고 한다.

그외에도 북한은 로마교황청에 1명을 파견 신부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87년도에는 1명을 더 파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3년내에는 북한에 공인된 신부가 나올 전망이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기독교협의회(WCC)와 교황청에서 북한지역선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기독교 및 천주교에서 북한지역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북한 종교계 움직임을 보면 기독교,

천주교보다는 불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북한지역에는 문화재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유지되고 있고 불교정신과 문화가 타종교에 비해 뿌리깊게 박혀있는데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체제수호와 정권유지 이용에 용이하다는데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어찌되었건 간에 북한이 종교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명목상 종교에서 실질적인 종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이런 움직임이 보다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종교가 북한지역에 뿌리내려진다면 남북종교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화합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948년에 제정된 북한의 구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의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1972년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신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보다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 528조에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부나 목사, 승려등 교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시한 것이고 형법257조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종교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북한은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라는 종교반대 논리를 단행본으로 발행,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반종교 논리를 집중적으로 선전한다.

이런 북한이 70년대에 들어오고 부터는 북한내에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선전하기 시작했고 외국 의 종교인을 초청하거나 국제 종교행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종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이와같은 변화는 당시 7.4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남북간에 대화가 개시되고 국제적으로도 세계기독교협의회(WCC)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은 종교가 하나의 대외적선전도구로서 이용 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존재를 강조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형법 및 노동당 규약등의 규범을 통해 주민들을 종교와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조선기독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가 대표적인 종교단체이고 그와 지난해 결성된 조선 천주교 신도연합회와 조선유교연맹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기독교연맹은 1946년 11월에 결성되어 수차례의 개칭, 잠적과정을 거쳐오다 1974년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로 출현된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산하조직으로는 시·도단위에 50여개의 지방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중앙위원회에는 조직부·선교부·경리부가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신도수는 1만여명, 교회 1개, 가정교회 5백개이다.

조선 불교도연맹은 1945년 11월에 결성, 수차례의 개칭, 잠적을 거쳐 1972년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출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으로는 평양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시·도에 시·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당시 북한지역에는 4백여개의 사찰이 있었고 한반도 전역 31개 대본산 가운데 북한지역에는 9개의 대본산이 있었으나 6.25 전쟁후 대부분 파괴되었다.

조선 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는 1946년 2월 창설, 1974년에 재건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중앙조직외에 시·도별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거나 활동사항을 발표한적이 없어 타종교에 비해 활동이 가장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종교단체는 종교행사를 주도하거나 신도들의 결

속을 다지는 종교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일개 산하단체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중앙조직에 극소수 인원이 등록되어 있고 산하조직은 명단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명분상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종교단체들은 신도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교직자의 명단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종교의식에 필요한 성경이나 불경, 경전 등의 보급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외통신 627호, '89.2.17)

◎北韓最高人民會議 豫·決算案分析

1. 概要

- 北韓은 4月 7日 만수대 議事堂에서 金日成 參席리에 最高人民會議 第8期5次會議를 開催, 單一議案으로 상정된「'88年度 決算과 '89年度 豫算案」審議에 着手하였음.
- 政務院 財政部長 윤기정의 豫算案 報告內容은 金日成 新年辭와는 달리 지난해 經濟建設 實績나열에 비중을 두었으며, 『'89年度 豫算은 內部源泉을 動員, 自體 豫算收入으로 財政支出을 확고히 擔保하는 自主的인 經濟建設 豫算이며, 人民生活을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된 人民的 豫算』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 '88年度 決算內譯은 歲入 319億 580萬원 (148億 3,991萬\$), 歲出 316億 6,090萬원(147億 2,600萬\$)으로 2億 4,490萬원 (1億 1,391萬\$)의 黑字를 나타내었으나, 當初 豫算案에 서의 歲出規模와 비교하면 99.4%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
- '89年度 歲出入 豫算規模, 335億 5,070萬원(156億 498萬\$)으로 '88年度 豫算額(決算基準) 보다 歲入面에서 5.2%, 歲出面에서 6% 增加된 수준으로 編成되었음.

○ 歲出 項目別 構成比 역시 전년도 豫算案과 類似하며, 軍事費 比重은 전년도보다 0.1% 減少한 12.1%로 발표하고 있어서 豫算上의 軍事費는 40億 5,963萬원(18億 8,820萬\$)에 불과하며 상당한 금액이 他豫算 項目에 隱蔽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됨.

※北韓의 實質軍事費는 通常 豫算總額의 30%수준으로 評價됨.

2. 豫決算內譯

가. '88年度 決算

區 分		金 額	構成比(%)	前年比增加率(%)
歲 入		319億 580萬원 (148億 3.991萬\$)	-	5.1
歲 出		316億 6.090萬원 (147億 2.600萬\$)	100	5.2
支 出 內 譯	人民經濟費	※ 212億 7.226萬원 (98億 9.047萬\$)	※67.2	6.5
	社會文化費	※60億 152萬원 (27億 9.140萬\$)	※19.0	5.5
	軍 事 費	※ 38億 6.263萬원 (17億 9.657萬\$)	12.2	※ -2.7
	管 理 費	※ 5億 2.450萬원 (2億 4.395萬\$)	※ 1.6	※ 16.2

註)※표시는 分析된 數值임.

北韓원貨의 對美換率은 1\$: 2.15원 適用

나. '89年度 豫算

區 分		金 額	構成比(%)	前年比增加率(%)
歲 入		335億 5,070萬원 (156億 498萬\$)	—	5.2
歲 出		335億 5,070萬원 (156億 498萬\$)	100	6.0
支 出 內 譯	人民經濟費	※ 225億 6,986萬원 (104億 9,761萬\$)	※67.3	6.1
	社會文化費	※63億 3,760萬원 (29億 4,772萬\$)	※ 18.9	5.6
	軍 事 費	※ 40億 5,963萬원 (18億 8,820萬\$)	12.1	※ 5.1
	管 理 費	※ 5億 8,360萬원 (2億 7,144萬\$)	※ 1.7	※ 11.3

註):※표시는 分析된 數值임.

北韓원貨의 對美換率은 1\$: 2.15원 適用

3. '88年度 主要建設實績 및 '89年度 經濟施策 方向

가. '88年度 實績

- 지난해에는 3次7個年計劃 遂行에 決定的 意義를 갖는 전력, 금속, 化學公業기지 建設에 주력하였음.
- 전력부문은 120萬KVA의 발전능력을 새로 造成—泰川 1號 및 2號 發電所 操業, 3.17 發電所 3段階工事完工, 위원 發電所, 順川火力發電所 建設 推進

- 금속공업부문은 주로 제철·제강시설 확장에 주력
 - 金策製鐵, 黃海製鐵 擴張工事 推進 및 8號 製鋼所 操業
 - 기계공업부문은 자동차 및 공작기계 생산능력 확장에 주력
 - 勝利自動車 綜合工場 확장공사 및 熙川工作機械 확장을 위한 기본건설공사 추진
 - 加工中心盤, 數值調整工作機械 등 1,300種以上の 新機械開發
 - 化學 및 建材工業部門은 시멘트·화학섬유·비료공장 건설에 주력하고 일부확장공사 완공
 - 상원시멘트工場 建設, 順川비날론, 사리원 카리肥料工場 建設 推進
 - 清津化學纖維, 新義州化學纖維, 海州製紙, 南興青年化學工場 擴張工事 등 完工
 - 수송부문은 혜산—만포사이 青年鐵道(北部철길) 開通, 平壤—開城間 고속도로 路盤工事 完工, 평양국제비행장 건설 추진
 - 기타 평양시가지 건설공사 성과적 추진
 - 131個 對象의 건설 완공, 일부 마감단계
- 나. '89年度 經濟施策 方向
- 금년은 경공업의 발전과 주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위해 경공업부문 투자를 전년비 13% 증대

- 金日成 新年辭에서 금년을 輕工業의 해로 設定

○ 그러나 실제로 역점을 둔 事業分野는 기계공업부문으로
기본건설 투자액을 전년비 16% 증가 계획

- 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에 투자 집중 계획

○ 주요건설대상은 영원, 남강, 熙川, 泰川 5號, 금야강發
電所 등 建設을 계속, 淸津火力擴張工事 및 東平壤火力發
電所 建設 착수, 金策製鐵 2段 확장공사 계속 추진, 平壤
- 開城間 고속도로와 平壤國際飛行場 建設을 完工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4. 綜合評價

○ '88年度 決算內容을 분석한 결과 예산증가율이 '87年度
實績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生産不振으로 인한 財政
難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評價됨.

- '87年度 前年比 세입증가율은 6.3%, 세출증가율은 5.
9%이었으나, '88年은 각각 5.1%와 5.2%로 鈍化

○ '88年 經濟實績 報告內容은 基本建設以外에 生産實績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바, 이는 원자재와 노동력을 기본
건설에 집중 投入함으로써 生産活動이 상대적으로 沈滯
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89年度 豫算編成은 豫算增加率이나 支出構成이 前年度

와 비슷하나 機械工業部門과 輕工業部門에 基本建設
投資額을 대폭 增大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전자자동화 및 공작기계부문 투자는 前年比 16% 經公
업부문의 投資는 前年比 13% 增加를 計劃

- 今年도 북한경제시책은 새로운 建設事業의 착수보다는 7
月 開催豫定인 世界青年學生祝典과 관련하여 推進中인
建設事業의 마무리와 住民 消費品을 비롯한 산업별 생산
활동浮揚에 주력할 것으로 展望됨.

◎ 85년후 北韓의 主要軍事動向 및 戰力強化實態

北韓은 최근 對南平和攻勢를 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면에서 北·蘇간 해군합동훈련을 실시하는등 군사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금년 2월 4일 모스크바방송 보도에 의하면 소련 해군 부총사령관 아나톨리 구즈민중장은 이 방송기자와의 회견에서 北·蘇가 진행하고 있는 合同海軍訓練과 관련, 『서로 국경을 접하는 소련과 조선인민은 좋은 이웃으로서 상호주의원칙의 우호조약으로 맺어져 있다. 소·조 양국 군함들은 86년과 88년에 원산항과 블라디보스톡항을 호상 공식 친선방문했다. 소련해군은 인민조선해군과 함께 군사연습을 위한 일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침략자들이 상륙하는 경우에 그것을 격퇴하는 행동을 연마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소·조 두나라 근해에서 1주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되며 협소한 전술적 성격과 순전히 방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연습은 1년에 한번 이상은 하지 않으며 아주 제한된 무력이 참가한다. 즉 소련 군함은 5~7척 밖에 참가

하지 않는데 이것은 연습에 참가하는 조선 해군력의 20~2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즈민중장의 이같은 발언이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 해군활동의 증가와 관련한 서방측 보도를 일축하고 오히려 태평양지역 소련해군력의 감축을 강변함과 동시에 韓·美 팀스피리트 훈련과 美·日 합동군사훈련의 「방대한 규모」와 그 「공격적 성격」을 내세워 자신들의 평화애호적 노력과 조치들을 부각시키기 위한데 목적을 둔 것이기도 하나 소련이 北韓과의 合同海上軍事訓練事實을 최초로 공식인정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우기 소련의 對北 군사원조증가와 함께 북한 군사훈련이 크게 증강되는 추세와 관련해 볼 때 이같은 발언은 韓·美, 美·日간의 군사적 협조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北·蘇간 군사적 연계및 對北 군사원조의 폭을 확대 내지 균형을 취하겠다는 소련의 의도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北·蘇간 해군합동훈련사실은 이미 86년10월 20일 헤이스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에 이어 88년3월28일 제레미아 美태평양함대사령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바 있으나 소련군당국이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과 소련은 오랫동안 양국 국경지대에서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해 왔다.

쌍방간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에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소련의 최신예 군사장비의 對北지원 확대와 북한자체의 의도에 따라 북한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어 온 점이라 하겠다.

북한당국의 공식발표는 그들의 군사력이 대폭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서방측의 분석과 상치된다. 예컨대 북한당국은 군사비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되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86년 예산대비 14%, 87년 13.2%, 88년 12.2%의 하향 추세에 있다. 또한 병력수에 있어서도 86년 9월 15만명의 사회주의건설현장 투입에 이어 87년7월의 인민군최고사령부 보도에 의해 10만의 일방적 감축이 단행된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서방측의 평가및 보도에 의하면 北·蘇관계 개선이래 북한의 군사력이 質·量的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방성이 88년4월29일 議會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소련군사력 88년」은 84년 북·소관계가 현격히 개선된 이래 85년부터 미그-23기 46대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SA-3 GOA 지대공 미사일 3개 대대를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북한의 舊型 SA-2 가이드라인 지대공미사일 수십대를 현대화할 수 있는 장비가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북·소간 군사

협력관계의 특징을 합동해군훈련실시, 상징적 寄港과 항공기의 교류, 정보수집의 협력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경제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장비의 개선과 조직개편 및 전진배치, 소련과의 海·空軍기동훈련강화 등 전투력 개선과 軍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세계적인 군사전문지「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북한병력의 증가세가 확연히 드러나 북한당국의 발표를 무색케하고 있다. 즉 85~86 「MILITARY BALANCE」의 평가에서 북한의 정규군 수가 8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전시동원능력은 500만에 달했는데, 이후 정규군 수와 전시동원능력은 계속 增加된 것으로 나타난다.

北韓의 군사적 增強現況을 가장 포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88년1월29일 한국 국방부가 최초로 작성, 발표한 「88년도 국방백서」라 할 수 있다.

이 「국방백서」는 北韓이 80년대들어 既存의 대남전략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 정치평화적·사상적·조직적·외부적·군사적 대남공세인 「5大集中包圍攻勢」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핵심은 군사적 공세로서 결정적 시기에 대비, 평양-원산이남에 총 146개사단 및 여단 중 2/3정도를 전진배치하여 병력과 장비의 재배치없이 즉각 공격가능하게 되었고, 6개 기동군단, 항공기, 잠수함,

특수전투요원 9만6천명 등 기습적인 전격전 수행능력을 확보했으며 전쟁물자는 4~6개월분을 비축했다고 분석했다. 이 백서는 북한이 88년에 소련으로부터 최신예 미그-29, 12대를 제공받아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켰는데 87년도에도 근접지원기 SU-25 10대, SA-5 지대공미사일을 역시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덧붙였다. 병력규모는 정규군 87만명, 예비전력 560만을 확보, 유사시 동원병력이 647만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軍別編成을 보면, 地上軍은 15개 군단급과 포병 및 기계화사령부로 편성되어 있고 각도별로 9개 사령부를 두고 있고, 사단급으로는 58개 보병 사단·여단과 23개 기계화보병여단, 13개 전차사단·여단, 22개 특수부대여단, 30개 포병사단·여단 등 총 146개 사단·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기계화 및 전차부대의 대폭적 증강은 속도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海軍은 東·西海 함대사령부로 나뉘어 東海에 8개 전대, 西海에 5개 전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함정은 東海의 380척, 西海의 250척, 그리고 잠수함 및 잠수정 25척에 이른다.

空軍은 3개 전단사령부와 1개 항공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용 항공국도 직접 관장하고 있는데 1천여대의 항공기

(전투기 7백40대, 폭격기 80대 등)가운데 40%를 전방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한은 60년대초반부터 화생방 무기의 연구 및 생산기구를 설치, 오늘날 수포·신경·질식·혈핵·채류성 유독가스를 대량생산·배출하고, 콜레라·페스트·炭疽菌·유행성출혈균을 배양·생산해 생산실험단계까지 마쳤으며, 화생방 연구소 3개소, 생산시설 8개소, 저장시설 6개소가 있으며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운용하고 있다.

이로써 미육군이 사용하는 전투지수로 볼 때 88년말 현재 한국군은 북한에 비해 재래식전력이 65%수준이고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면 70%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주요 군사력수치를 비교하면, 총병력은 65만명 : 87만명, 전차·장갑차 3천50대 : 5천4백60대, 전투함 1백70척대 : 4백10척, 전술기 4백80대 : 8백20대로 북한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백서」가 발표된 후 금년 2월9일 국방부발표에서 정규군이 1백만에 육박하고, 인민경비대까지 포함하면 1백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병력의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또한 금년 1월말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에 의하면 소련이 아프카니스탄 철군으로 생겨난 군비의 잉여분 특히 공군력

을 북한측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군·防空力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컨대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련으로부터 최신예 軍備가 제공되는 등 소련과의 전략적 연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군현대화계획이 괄목할만한 진척을 이루어 정규군의 현저한 증가 등 전시동원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정규군의 현대화 및 기계화부대의 질적개선과 아울러 공군력 및 방공체제가 상당히 보장된 점이라 하겠다.

(내외통신 633호, '89.3.31)

◎ 南北對話機構의 性格과 機能

— 「祖平統」 「祖國戰線」 등의 實體 —

北韓은 최근 「祖平統」 등 위장평화기구들을 앞세운 對南 모략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팀스피리트89훈련을 빌미삼아 이미 합의된바 있는 南北국회예비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놓은바 있는 북한은 그들의 선전선동매체들을 동원 對南책임전가 선전을 연일 펼치는 한편으로 「祖平統」(조국평화통일위원회), 祖國戰線(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對南흑색선전기구인 「民戰」(한국민족민주전선)을 통한 각종 對南선동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다.

이들 북한의 對南위장평화 기구들은 모두 노동당의 前衛 단체들로서 그동안 南北韓간의 긴장과 대립이 격화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특히 울들어서는 전례없이 다양한 對南선동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 대화창구로서의 전면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들어서 북한의 「祖平統」은 2월 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막후접촉과 관련한 내외신 보도를 부인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고 2월 7일에는 정례적인 「書記局 보도」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및 5共非理 진상규명과 관련한 對南 선동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2월 15일에는 한국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편지를 보내 「범민족대회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 기존의 당국간 남북대화채널들을 희석시키는 한편으로 연초에는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訪北을 「祖平統」위원장 許鎔명의로 초청하는등 對南접촉창구역할을 구사하기도 했다.

또한 「祖國戰線」은 2월 27일 「書記國 白書」라는 것을 발표하고 盧泰愚대통령의 취임 1년실적을 왜곡선전하며 정부·국민간의 離間을 획책하는 對南선동文句들을 늘어놓았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는 「구국의 소리」 방송을 이용,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촉발시키려는 유언비어유포와 폭력선동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에는 이같은 對南사업을 위한 前衛단체들 외에도 「在北平和統一촉진협의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가 있으나 「在北평통촉진회」는 주요 구성인물들이었던 拉北인 사들이 사망하거나 거의 無氣力한 노령인물들이어서 그 존재가 有名無實化해진 상태에 있다. 「평화전국위원회」 역시

구성인물들이 知名度가 낮고 주요 활동방향이 세계평화문제와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對南선전선동기구로는 적합치 않아 별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가장 有用하게 對南사업기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祖平統」을 비롯, 「祖國戰線」과 「民戰」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은 다같이 노동당의 對南혁명전략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된 前衛단체들이다.

이들 기구들이 동원하고 있는 선전선동형식은 성명, 백서, 비망록, 담화, 서기국 보도, 고발장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내용면에서도 때에 따라 평화공세를 담아 메시지를 발표하는가 하면 폭력혁명을 충동질하는등 시시각각으로 변색되는 두개의 얼굴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특히 을들어 남북한관계 현안이 빈번하게 대두되고 한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편승, 이들 對南선전선동기구들을 적극 앞세워 각종 對南선동메시지들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에 이들 기구의 實體와 함께 주요 활동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본다.

「祖平統」

북한은 「祖平統」이 1961년 5월 13일 金日成의 발기에 의해 조직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한국에서는 1960년 4.19의 결과로서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 북한은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對南평화공세를 강화한 시기였다.

한국의 4.19의거에 의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무원칙한 감상적 통일논의가 만연되었으며 일부 학생들 속에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등의 구호를 내거는 등 환상적 통일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북한이 명목상의 조국통일 실천기구로서 「祖平統」을 조직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조직된 「祖國戰線」과 「祖平統」은 임무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으나 성격과 구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祖平統」의 조직구성이 북한의 주장처럼 정당 및 사회단체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조국전선」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문공작기구로서 그 임무와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祖平統」은 통일문제의 창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당에서 장악하기 마련이며 현재 黨정치국원겸 비서인 許鏞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 기구의 성격을 요약하면 노동당의 통일노선을 직접 대행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84년 1월에 3자회담을 제안한 것을 비롯, 주로 駐韓美軍철수와 反정부·反美투쟁선동, 남한에서 「애국애족적 민주역량」을 표방하는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사업 전개, 북한의 통일노선에 대한 국제적 지지획득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북한은 최근들어 「祖平統」을 앞세운 對南제의 외에도 對南선전선동을 다양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동형식에 있어서는 주로 정례적인 「서기국 보도」를 포함해 성명, 백서, 비망록, 고발장, 공개질문장을 내놓는 가 하면 때로는 기자회견형식 모임을 열어 한국내의 정세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동메시지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남북연석회의, 팀스피리트훈련,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祖平統」의 對南선전선동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며 울들어와서도 남북정치협상회의 및 광주민주화운동 및 5共비리와 관련한 한국내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對南선동공세에 초점을 맞춘 선전선동메시지를 여러차례 발표한바 있다.

「祖平統」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는 對南선동메시지들은 한결같이 겉으로 「민족화합과 단결」, 「민족문제해결을 위

한 대화노력」 등 그럴듯한 평화적文句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赤化통일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南韓內的 혁명적 분위기조성을 겨냥한 선동문구들로 채워지기 일쑤이다.

「祖國戰線」

북한의 정치사전(77년판)에 언급된 「祖國戰線」은 『남반부의 反帝애국역량을 단합시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국전선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9년 6월 28일 「北朝鮮民主主義戰線」(47년 7월)과 「南朝鮮民主主義戰線」(46년 2월 결성)을 통합해서 결성된 것이 「祖國戰線」이다. 이 기구는 결성당시부터 통일사업은 『남조선인민 자신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美軍과 UN한국위원단의 철수를 주장하는 등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조직된 「祖國戰線」에는 노동당을 비롯, 사회민주당, 청우당 등 3개정당과 社勞靑, 직맹, 농근맹 등 사회단체, 그리고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등 20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당과 단체가 가입된 형식으로 조직된 것은 노동당의 독재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전적으로 지원

옹호하는 것처럼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祖國戰線」은 해방직후 立法기관의 선거를 위해 南北韓의 총선거 실시와 南北韓의 정당·사회단체대표로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하는 등으로 南韓의 共產化에 앞장섰다. 1979년 1월 23일에는 全民族大會를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이 회의에 南北정당·사회단체 이외에도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사와 해외동포의 조직과 개별적 인사도 참가시킬 것을 주장하는 등 비현실적인 제의를 한 바 있다.

이어 81년 8월 6일에는 「祖國戰線」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南北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촉진대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이러한 「祖國戰線」의 제의들에서 드러난 특징은 南北대화를 위해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南韓이나 해외의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아무때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표방한 점이다.

그러나 당시 그 배경에는 한국측이 제의한 1.12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 상호방문과 6.5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의 직접회담을 제의한데 대해 이를 정면거부함과 동시에 南韓내에 통일전선구축을 통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기도가 담긴 것이었다.

이후 북한이 「祖國戰線」단체를 앞세워 남북대화를 제기

하는 등의 행적들은 대부분 실질적 성과를 외면한채 대내외적 선전효과를 거두어 보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고 그때마다 이 기구의 虛名無實한 정체가 백일하에 폭로되자 최근들어서는 「祖國戰線」을 앞세운 對南제외나 평화공세를 삼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祖國戰線」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이긴 하나 표면상 북한의 모든 정치집단이 망라된 협의체라는 성격때문에 이 기구를 직접적인 대남비난선전기구로 내세울 경우 통일선전기구로서의 이용가치가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民民戰」

「民民戰」은 종래의 통일혁명당을 개칭한 對南흑색선전기구로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그 실체가 韓國內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시시때때로 「民民戰」을 앞세워 각종 對南폭력혁명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이 기구의 선전방송인 「구국의소리」 방송을 이용, 끊임없이 온갖 허위와 날조된 메시지들로 점철된 對南모략선전방송을 일삼고 있다.

「民民戰」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통혁당은 당초 지난 68

년 7월 노동당연락부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된李文奎를 수뇌로 하는 간첩단이 일망타진됨으로서 이들을 중심으로한 북한의 지하당구축기도가 좌절되었는데 이 조직이 가칭 통일혁명당조직이라고 불리워졌다.

그후 1968년 8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서울에서 남한내 지하당인 통혁당이 재현되었다』고 허위보도하고 소위 통혁당중앙위 명의로 선언문과 강령을 발표하는 등의 위장선전쇼를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내에 통혁당조직이 실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갖가지 조작극을 연출해 왔는데 그 예로 북한의 黨大會나 金日成생일행사등 주요 행사때마다 소위 통혁당대표라는 자를 등장시켜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체제를 찬양케 하는 등의 어설픈 연극까지 빈번히 벌였다.

이와 같은 허위조작극을 해외로까지 확대했는데 1975년 4월 18일 통혁당재일한국인 연대위원회라는 명칭뿐인 위장단체를 내걸고 기관지인 「민족통일신문」까지 발행하면서 각종 국제집회에까지 통혁당대표라는 가면을 쓴 자들을 참석시키는 비행을 드러냈다.

북한은 1985년 7월 27일 통혁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통혁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통혁당방송도 「구국의소리 방송」으로 이름을 바

꾸었다. 이 회의에서 명칭변경과 관련한 선언문을 포함해 강령과 규약도 새로이 제정공표했으며 2백50여개에 달하는 당중앙위 명의의 對南선동구호를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당면강령이란 것을 제시했는데 그에 의하면 「민주정치실현」, 「자립적 민족경제발전」, 「자주적 평화통일실현」 등등으로 북한이 표리가 다른 의미로 즐겨사용하는 「민주·민족·자주」 등의 용어로 포장된 항목들을 나열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이른바 「혁명」 등의 과격한 용어를 가급적 피한 특징을 보였으나 그들이 표방한 「민족」은 사실상 反美를, 「민주」는 反정부투쟁을, 그리고 「자주」, 「자립」 등은 金日成주체사상을 基底로 하는 미화분식된 문구들이었다.

(내외통신 629호, 89. 3. 3)

◎ 平壤 FM방송의 正體

— 韓國 청소년층대상 심리전파 —

北韓은 금년 1월 1일부터 「平壤 FM방송」이란것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FM방송은 주파수 92.5와 105.2MH로 平日에는 每日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8시간을, 공휴일은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종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출력 20kW로 平壤과 開城에서 각각 송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平壤 FM방송이 지난 1월 1일 개국되어 25일까지 방송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방송시간편성면에서 음악방송 위주의 편성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소설낭독 등 文藝物으로도 편성하고 있다.

방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방송 편성비율이 전체방송시간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음악프로그램 가운데 「수령님 은덕일세」·「수령님따라 천만리 黨을따라 천만리」·「金正日花」·「영웅의 그나이 열여덟이었는데」·「간석지에 새겨나는 청춘의 마음」·「혁명의 주인은 우리인민」

등등 金父子우상화 및 혁명가극음악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순수음악프로의 경우 베토벤의 바이올린협주곡·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모짜르트교향곡·클라이슬러의 바이올린독주·요한스트라우스의 관현악 등 세계古典名曲방송이 41%가량을, 기타 세계古典歌劇음악·민요·시가극 등이 12%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프로방송이외의 시간대에는 주로 소설낭독·기행시극·풍자극·방송시극 등 文藝物프로를 편성 방송하고 있는데 전체방송시간대의 10%정도이다.

특히 이들 文藝物프로방송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체제찬양과 함께 對南비방성내용을 노골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요 文藝物프로내용을 보면 우선 金父子에 대한 충성심 고취의 「아침해」란 소설낭독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對南비방성프로들로서 편성되어 있다. 「별빛어린 섬마을」이란 紀行詩劇은 韓國정부의 학생운동탄압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각하의 속심」이란 풍자극은 韓國정부의 施策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있다.

또한 「햇빛을 따라」라는 放送詩劇은 이산가족의 재회를 둘러싼 韓國정부의 非인도성을 부각시키며 北韓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對南비방성 프로의 방송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햇빛을 따라」프로에서 『남조선특무관들이 연희를 납치하려는 순간 이들이 접근한다. 특무관들은 몸을 피하고 연희와 연희어머니만 남는다. 서울로 날 끌고갈려고 싫어요 안가요』· 이때 예술단선생(연희고모)이 끼어든다. 『여보세요 어머니란 자식들이 우리여성들에게 준 귀중한 칭호예요. 어머니란 말을 잘못된것 같군요. 무섭군요 서울이란 제 낳은 자식을 이렇게 팔다리를 묶어 입까지 틀어막아 끌고가는 곳인가요』(연희고모)· 『경고한다 딸이 평양예술단과 휩쓸리지 말게하라! 다시 경고한다. 상자속에 들어가 서울여행하고 싶나』 등등 제3국에서 이산가족이 재회하는 것을 소재로 北에서온 한 여인을 등장시켜 北韓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통해서 韓國정부를 非인도적이고 부도덕한것으로 부각시키는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방송은 韓國社會의 갈등문제를 다루면서 청년학생들의 反체제·反政府의식을 고취하도록하는 프로도 방송하고 있는데 연속방송극 「햇불을 찾아서」란 프로는 日帝下 日本경찰과 광주주민들의 反日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프로의 줄거리는 조선학생(광주고보)과 일본학생(광주

중학)간의 한 야구시합을 계기로 일본심판의 편파적 심판으로 야기된 日本경찰과 광주교보·광주주민의 투쟁상을 엮고 있어 오늘날의 광주문제를 청취자들이 연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토막극형식을 빌은 「흑막속의 청와대비화」란 프로는 한국정부에 대한 모략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프로의 줄거리는 부패한 지방관리와 권위적인 청와대경호원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前全大統領의 사리사욕비난과 現大統領과 美國이 합작으로 北侵준비를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림으로써 청취자들의 反체제·反政府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같은 對南비방성프로는 北韓이 年初 平壤 FM방송을 처음 내보낼때 멘트에서 『시대의 숨결을 선율에 담아 아름답고 고상한 음악의 세계를 펼쳐지게 될 우리平壤FM방송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생활의 길동무로 될것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순수한 음악방송을 표방하고 있지만 기실 對南심리전차원에서 이방송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北韓內 일반가정의 FM수신기 보급이 全無한 실정임을 비추어볼때 平壤 FM방송은 北韓住民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보다는 FM음악방송을 즐겨듣는 韓國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순수음악방송으

로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간간히 北韓체제 찬양음악과 對南 비방성프로를 끼워 北韓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하고 한국내에서의 反체제·反정부투쟁을 고무·충동하는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같은 사실은 北韓이 지난 1월 20일 이방송에서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오기위해 반미구국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올해를 더욱 빛나게 장식할 뜨거운 일념으로 불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란 멘트를 붙인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편 北韓의 라디오방송도 여타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사상선전의 무기로서 『인민대중을 黨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위업의 실천에로 조직동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對南방송의 경우 체제우월성 선전과 對南비방 및 반미·반정부투쟁선동으로 일관되고 있다.

북한에서 對南방송을 관장하는 부서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산하 대남 방송위원회·대남국이 방송을 주관하고 있지만 이 기구는 방송실무만을 담당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정책이나 내용은 黨중앙위가 결정하며 黨대남사업담당부서가 그 시행을 관장하고 있다.

현재 北韓에는 4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對內用인 조선중앙방송, 對南·對外用的 平壤방송, 그리고

對南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이 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통혁당목소리방송을 85년 8월 改名한것으로서 開城에 본부를 두고 海州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고 있다.

(내외통신 625호, '89.2.10)

◎ 北韓 · 蘇聯間의 經濟協力實態

— 蘇, 시베리아 共同개발 및 기간산업 적극지원 —

최근 北韓과 소련間의 經濟協力관계는 시베리아共同개발에 따른 合作추진등 다각적인 교류증진과 함께 소련의 北韓內 산업시설건설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이 보도한 北韓 · 소련間 「經協」관계를 종합해보면 北韓과 소련프리모리에지역간의 合作기업소 설립 등으로 경제협력이 일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地質 · 水産業 · 農業 · 기계 · 輕공업 · 차량생산 · 철도운수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서는 北韓의 제3차 7개년경제계획추진과 관련한 산업시설 건설에 따른 소련지원이 적극화되는 등 北韓 · 소련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9일 모스크바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 太平洋해양연구소와 北韓과학원산하 東海연구소 해양지질학자들이 공동으로 北韓동해안 근해에 대한 해저탐사활동을 몇차

래 걸쳐 실시한 결과, 대규모 인회암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를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北韓·소련간에는 어로부문에서의 협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해서 水産業合營기업소설립이 추진중에 있고, 農業부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北韓근로자들이 프리모리 지역에 있는 「고르샤롭스키 소포호즈」(국영농장)에 진출, 오이등의 야채를 재배하고 있는데 소련측은 이 농업개발에 따른 농토와 농기계·비료 등을, 北韓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협력방식인 것으로 밝혔다.

이 방송은 北韓측이 이같은 노동력제공의 댓가로 농업생산물수입의 40% 가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최근 北韓·소련간에는 貨物차량생산부문에서도 상호협력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8일 모스크바방송은 소련측이 元山の 6월 4일 차량생산공장과와의 차량공동생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이 공장에서는 소련으로부터 기술지원협력으로 주문無軌車가 제작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러한 北韓·소련간의 차량공동생산은 소련측이 선적화물 및 짐함수송에 필요한 無軌車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서 北韓측도 無軌車주문생산에 따른

공장의 재건확장, 그리고 생산증대에 따른 시설확대의 이해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은 기계·경공업·철도운수부문에서의 경제교류도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조종공작기계들을 생산하는 이와노프·희천 국제연합체가 이와노프공작기계작 생산연합체와 희천공작기 공장간에 설립기로 협정을 조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후라이스반을 생산하는 희천·고리끼 합영기업소도 창설, 공장건물이 희천에 건설되고 北韓기술자들이 소련기업들에서 실습중인 것으로 전했다.

경공업부문에서도 협력교류가 일층 강화돼 지난해 1년동안 소련의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제품화하여 납입하는 北韓공장의 숫자가 1백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피복생산의 경우 매달 제봉제품 5백만점이 소련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운수부문에서도 北韓·소련간의 늘어나는 화물량증대로 인해 핫싼·두만강철도가 화물통과 능력확장이 추진중에 있으며 소련측이 北韓으로부터의 강판을 지원받는 대신 소련은 北韓의 羅津·淸津間 철도부설에 필요한 레일과 北部철도에 사용할 전기기관차·디젤기관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같은 北韓·소련간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雙方간의 문제점도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스크바방송은 88년도 경제협력성과를 보도한가운데 『객관적 곤란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행했더라면 성과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생산에 따른 ○제품의 質향상 ○北韓근로자들의 기술향상 ○제품의 납입기일 준수 ○원료공급 문제 등으로 협력생산체제에 차질을 빚고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北韓·소련간에는 최근 소련측의 北韓산업시설건설에 따른 對北韓경제·기술적지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 25일 모스크바방송은 北韓에 대한 19개 지원건설대상가운데 하나인 平南安州 방직공장건설(10만추규모)설계도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咸興모방직공장의 일부 직포기도 소련제 최신설비로 교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련의 12차 5개년계획기간(86~90)중 對北경제지원 19개 대상가운데 주요시설의 건설진척상황을 보면 東平壤火電이 오는 91년까지 1단계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월 10일 착공됐다.

이 東平壤火電은 약 20만kw 규모로서 올해안으로 ○보

일터와 발전기제작·기초굴착공사 ○철도인입선 및 철도 부설작업 등을 완료하고, 오는 90년 6월까지 2백 10톤규모의 보일러 2대설치를 비롯, 옥외변전소 고열 정수관·運炭계통 및 재처리장·굴뚝 등과 기타 후생시설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또한 北韓최대의 磁鐵광산인 茂山광산 확장공사도 그 생산규모(現 5백만톤생산)를 단기적으로 1천만톤, 장기적으로는 1천5백만톤으로 높인다는 계획아래 소련의 지원으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박토운반벨트콘베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4,5호 박토운반벨트콘베어 5호선계통건설과 지하分광산건설이 지난해말 완료된데 이어 최근 1,2,3호 박토운반벨트콘베어 2단계杭공사가 완료됐다.

또한 金策제철소의 강철생산능력(現 150만톤)을 240만톤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84년부터 소련의 지원하에 2단계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해末까지 60여개대상건설 중 34개 대상이 완공됐으며 금년 들어서도 4호 燒結爐를 비롯, 3호加熱爐의 보일러·2號산소압축기·폐열감압장·원형농축장 등 6개대상이 추가로 완공됐다.

이 金策제철소는 지난 71~83년까지 소련의 기술·설비 지원아래 강철 1백만톤·열간압연 85만톤·냉간압연40만톤 등 金策제철 1단계확장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北韓·소련간에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경제협력교류추세는 우선 시베리아공동개발추진에 따른 合作 등 새로운 경제협력형태의 생산토대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덧붙여 소련의 對北지원대상에 대한 협력강화는 소련이 北韓의 제3차 7개년경제계획추진의 후원을 통해 그들의 對北韓 정치·경제적 영향력강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 韓國과 소련간의 경제교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北韓·소련간의 경제협력체제不變을 과시함으로써 北韓측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외통신 629호, '89.3.3)

◎ 最近 南北韓 交流 및 「當局間會談」에 對한 國外反應

周邊國들은 최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訪北에 따른 「金剛山 共同開發合意」 등 일련의 南北關係 급진전 動向을 예의 注目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주변국들은 남북한 간 「政治·軍事問題」를 論議하는 「當局間 豫備會談」이 아직까지 별다른 合意點을 찾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잇달아 北韓側으로부터 일방적인 國會會談 연기조치 通報가 있자 당초 北側의 開放動機 및 그 眞意與否에 觀測의 軸점을 두고 여러 가지 評價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 및 西方 일부여론은 이러한 남북한관계 진전양상에 대해 「急進的 交流무드의 虛構性」을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懷疑的 立場을 보이는 한편, 急速한 對話나 交流의 推進은 오히려 窮地에 있는 金日成 政權의 難局打開 術策에 이용될 뿐이며, 韓國內 일부 감정적인 학생·재야세력 등 급진 統一論者들이 北韓主張(T/S中止, 美軍撤收 등)에 同調함으로써 反美 意識을 가속화시켜 韓國內 輿論分裂이 高潮될 憂慮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中國系 言論은, 최근의 南北 交流무드를 「北韓의 開放決心」으로 評價하는가 하면, 때맞춰 蘇聯 타스通信은 前例없이 소련의 極東·시베리아 地域의 南北韓 共同開發 참가를 呼訴하고 있으며, 우리의 『南北韓 交流 協力에 관한 特別法』에 대해서는 中·蘇 모두 그 制定背景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南北交流 熱氣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듯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各國의 反應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美國을 위시한 西方側 주요반응을 보면 美國務省은 지난 2月 3日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南北韓 金剛山 共同開發은, 실현이 된다면 南北關係에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 언명한데 이어 2月 9日에는 “南韓은 모든 형태의 對話를 연기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論議가 건설적인 것으로 입증되기를 희망한다. 雙方間의 直接對話가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평화통일 지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北韓의 議會會談 연기결정은 유감스럽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北韓은 參觀人을 보내 직접 이 訓練을 보도록 초청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9年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해 『南北韓間의 金剛山 開發合意는 한반도 분단 이래 가장

관목할 사건이지만, 아직 北側의 성실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北韓은 南北韓間의 접촉과 통상거래를 韓國內部の 統一熱氣를 불러 일으키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열기를 美軍의 조기 철수쪽으로 몰아가려는 政治的 속셈을 갖고 있다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이어 뉴욕타임즈 또한 2月 9日자의 보도를 통해 『北韓이 南北對話에 임하는 입장을 왜 갑자기 바꾸었는지 또 얼마 동안 會談에 임하지 않을지는 불투명하다. 3月 2日 會談속개 전망도 역시 불확실하다.

서울 駐在 美國外交官들은 북한측이 T/S 문제를 反美感情 촉진제로 이용하려 하지 않나 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다. 지난 수주동안 北韓 내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外交官·企業人·學者들은 북한이 對話推進 국면에서 갑자기 뒤로 물러설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주 서로 상반되는 성명들이 北韓으로부터 나왔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對南關係 改善問題에 대해 北韓內部 세력간의 의견대립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分析家들의 견해로는, 北韓이 對南政策에 유연한 자세를 취하도록 中·蘇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北側은 南北韓間 새 접촉의 초점을 비공식 經濟交流에 맞추고 있다. 이는 經濟 生活化를 위한 外貨調達과 世界青年學生祝典 開

催費用을 조달하기 위한 필요때문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면서도 南北韓 關係改善에 대해 적지않은 의아심을 갖고 논평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同一字 로스엔젤레스 타임지는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板門店會談을 취재하러온 平壤駐在 한 東歐圈記者가 北韓의 명백한 전략을 한국내 反美感情을 부추겨 韓·美間 軍事盟綱 관계의 이완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사적으로 시인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AFP통신은 지난 2月 19日字 보도에서 『分析家들은 北韓이 3月 2日의 會談에 동의한 것은 韓·美合同 軍事鍊習問題를 거론하는 또하나의 기회를 얻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인디펜던트」지 역시 지난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해 『팀스피리트를 이유로 회담을 거부한 것은 韓國內 학생 및 反體制者들에게 반미감정을 증대시킬 것이며, 韓國 制度圈內에 이 軍事訓練의 縮小를 미국측에 요청할 것인가의 괴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미군철수를 촉진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미심장하게도 美國側은 아직 팀스피리트의 시작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韓國 國防部의 요청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팀스피리트를 둘러싼 설전으로 현재의 데탕트가 깨어질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난해 가을에도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겠다는 北側主張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거행되고 北側은 不參했으나 對話는 계속 되었다. 팀스피리트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다소 縮小될지도 모르나 데탕트가 완전히 끝장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雙方은 對話를 계속하라는 壓力(南은 國內壓力, 北은 中·蘇壓力)을 다 같이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月 16日字의 보도를 통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北韓訪問으로 韓國의 對北 접촉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그때부터 國內輿論들은 對北和解무드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고 모든 화해 제스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의가 일기 시작했다. 일부 知識人들은 盧泰愚 大統領이 자신의 인기전술로 統一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外交政策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에 대처하기 위해 政府는 이달중 새로운 統一方案을 발표하여 민간레벨의 對北接觸에 분명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韓國人들은 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서로 상반된 對北 宣傳에 混亂을 느끼고 있다.

최근 사태는 순조롭지 못하다. 지난주 南北總理會談 豫備會談이 결렬되었고, 北韓은 國會連席會談 準備모임도 취

소했고, 이산가족 상호방문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韓國이 아무리 신축성있게 행동하여도 세계에서 최장기 집권하고 있는 獨裁者가 統治하는 北韓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統一은 不可能하다고 말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스위크지 또한 2月 20日字의 보도를 통해 『韓·美의 회의론자들이 보는 시각은 최근 北韓의 和解政策은 남한사람들의 기대를 잔뜩 들뜨게 했다는 駐韓美軍問題를 이용해서 韓國 政府와 국민들 사이를 벌려 놓으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盧大統領으로서 실망이 되겠지만 이제 南北關係에 당장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이어 日本의 유력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2月 9日字의 보도를 통해 『第1次 南北 首腦級豫備會談은 北韓側의 韓·美 軍事鍊習中止 요구로 상당한 의견이 엇갈린 채로 끝났다. 여하튼 南北雙方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軍事對決의 解消를 지향하는 회담을 열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中國의 「대공보」는 2月 3日字의 보도를 통해 『鄭會長이 北韓을 방문하고 금강산 공동개발과 南北間 經濟交流와 협력에 합의를 본것은 北韓이 장래의 태도를 바꿔 對外

開放을 하겠다는 決定을 나타낸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이며, 앞으로 南北間에 經濟交流와 協力이 개시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北韓이 88年 11月 改革派인 延亨默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비롯, 「合營事業部」를 신설하여 蔡喜正을 부장으로 임명하고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世界 經濟指導者 大會에 참석토록 한 것은 물론, 對南 전문가인 金仲麟을 黨中央書記로 임명한 것등으로 미루어 볼 때 平壤側은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2月 9日字 관영 「북경방송」 또한 『北韓國會 代表團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第8次 會談은 팀스피리트-89 合同軍事 鍊習이 끝날때까지 미루었다가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로, 또한 이보다 3日후인 2月 12日에는 『어제 南朝鮮 內閣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의 조선 北側 訪問을 허락한데 대한 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1945年이후 南朝鮮에서 채택된 북남 왕래를 합법화한데 대한 첫번째 의안인 것입니다…」로 事實報道에 치우치고 있다.

蘇聯 또한 2月 3日字의 관영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관찰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주영의 방문에 뒤이어 다른 商工人들이 人民朝鮮 訪問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이것은

北南經濟 協調에 밀받침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에 대한 北의 政策에서 기초로 된 변동이 이미 생겼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平壤이 발의한 신축성은 장차 朝鮮 南北間의 관계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2月 7日에는 『2月 8日의 板門店會談이 성과있게 되는 경우에는 南北高位 指導者 상봉의 필요한 조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相互不侵犯에 대한 宣言採擇, 戰爭協定을 강화조약으로 交替할 것, 民主主義的 聯邦共和國의 태두리안에서의 분열과 같은 그러한 問題들이 토의에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南朝鮮 民族統一 李洪九長官은 이것이 平壤과의 會談에서 1차적 중요성을 가진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익일 2月 8日에는 『軍事鍊習이 시작됨으로써 올해에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金요일로 예정된 北南 國會間 會議組織에 관한 第8次 準備會談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관찰자들은 총리상봉도 그리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南朝鮮 代表團長인 國土統一院의 宋漢虎 次官은 군사연습 중지요구에 대해 이것은 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뜻이 강조했습니다. 3月 2日로 합의된 準備會議가 계속 진행

되겠습니까? 지난 해에 있는 國會間 會談過程에 朝鮮의 北과 南은 그들의 共同立場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만 對話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南北韓間 對話의 진행을 상당히 기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2月 9日 게라시모프 蘇聯外務省 代辯人은 『지금 중요한 것은 北南間 對話의 길에 새로운 障礙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며, 接觸을 계속하기 위한 분위기를 유지토록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언명하였으며, 2月 11日字 모스크바 방송은 『南朝鮮 사람들이 불원간 合法的으로 朝鮮 民主主義의 人民共和國을 訪問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南朝鮮政府에 의해서 승인된 法案에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 法案에 따라서 北朝鮮이 지금부터는 적대국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朝鮮民主主義의 人民共和國과의 上업이 조선국내 문제로 간주될 것이며, 北朝鮮 商品들이 輸入關稅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法案은 다음주에 國會에 제출될 것입니다...』로 韓國內 南北韓 特別法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IV. 알아둬시다

- 北韓의 冠婚喪祭
- 平壤市街地
- 大同江에 旅客船運航 宣傳
- “음력설”을 公休日로 지정

◎ 北韓의 冠婚喪祭

가. 結婚

- 戀愛結婚과 中媒結婚이 併行되고 있으나 平壤 등 都市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애결혼이 많음.
 - 中媒結婚은 처음 만날때 부터 상대방의 成分등을 뒷조사한 다음에 만나므로 파탄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함.
- 평양 처녀는 시골로 시집가는 것을 回避하고 있으며, 시골 처녀는 대개 軍官, 炭鑛 勞動者한테 시집을 가는데 軍官 및 평양사람과의 結婚을 熱望함.
- 保衛部, 당일꾼, 安全員 등은 자신이 選擇한 女子가 成分不良者일 경우 職場에 支障이 있으므로 職場을 포기하든가 여자를 拋棄해야 하는데 대부분 結婚을 포기하고 있음.
- 大學에서 미팅같은 것은 일체없으며 자신의 능력껏 異性을 사귀어야 함.
- 婚需감 준비는 신랑측은 新婦에게 줄 화장품, 옷감을 準備하고, 新婦側은 신랑에게 줄 양복지, 내의류, 이불 등을 準備하는데 勞動者層 新婦는 혼수준비가 어려워 현

이불을 구입, 新婚用으로 사용하는 事例가 허다 함.

○結婚式은 新婦집에서 進行후, 신랑집으로 옮겨가 본격적으로 進行하는데 대부분 「벼락 잔치」를 하고 賀客들은 3~5원 정도의 祝儀金을 내며 통상 국수를 대접함.

※벼락잔치 : 結婚費用을 負擔할 수 없어 1週日 以內에 조출히 치루어 내는 결혼잔치

○新婚夫婦는 金日成 銅像 앞에서 忠誠의 誓約을 하며 紀念寫眞도 撮影함.

나. 離婚

○男女 合意下에 離婚을 하게되며, 男子가 離婚을 원할 경우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女子가 원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政策的으로 加급적 離婚을 制限하려는데 따른 것이며 離婚手續은 該當地域 裁判所에서 하되 離婚時 男女 兩側이 50원씩을 裁判所에 기탁케 하고 있음.

다. 還·進甲

○還甲은 만 60歲, 進甲은 만 70歲에 지내고, 친척·이웃·직장동료 등을 招請, 음식(떡·국수) 등을 待接하는데 통상 200원 정도의 費用이 소요되며 2~3년전부터 準

備해야 함.

라. 葬禮

- 死亡時 보통 3日葬을 지내며 直系 尊卑屬의 경우에 한하여 死亡通知書(訃告)나 電報를 받으면 휴가와 旅行證明書가 發給되고 친·인척들은 3~10원정도의 부의금을 傳達함.
- 大都市에서의 葬地는 주로 共同墓地에 埋藏하나 共同墓地가 없는 地方에서는 편리한 장소에 임의로 매장하며 1년 탈상(일명 : 둥제사)이 통례이나 3년 脫喪을 하기도 함.
- 墓地는 그 차지하는 面積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農土 등 土地利用面積이 줄어들게 되어 埋藏制를 止揚하고 火葬을 하도록 하는 金日成의 敎示(時期未詳)가 있었다 함.
- 同 敎示에 따라 平壤市 三石區域에 火葬場을 新設하던중 老人들의 『두번 죽을 순 없다』는 頑強한 反對에 부딪혀 建設中이던 火葬터를 없애버렸다 함. 그후로는 다시 埋藏制로 還元되었으며 現在까지 火葬은 하지 않는다 함.

(魚成日 陣述)

◎ 平壤市街地

가. 平壤市(18個 區域 4郡)

○평양시를 南에서 北을 向해 볼때(漢江이 서울시를 강남·강북으로 가르듯이) 大同江이 平壤市를 東西로 가르며 흐르고 있음.

○平壤市의 다리는 上流쪽에서 下流쪽 順으로보면 東西로 연결하는 玉流橋, 大同橋, 羊角다리, 大同江鐵橋와 大同江의 南北을 連結시키는 忠誠의 다리가 있음.

※평양시 面積: 2,800km² (서울: 627km²)

나. 平壤市內

○平壤市 北端에서 南端에 이르는 평양거리를 概括的으로 살펴보면 장산거리, 개선문거리, 모란봉거리, 만수대거리, 서성거리, 붉은거리, 천리마거리, 승리거리, 역전거리 등이 있음(이상 大同江 北端부터 普通江 南端까지)

○最近 몇년간 普通江의 西쪽에 位置한 萬京臺區域을 集中開發하고 있는 바, 안골 體育村과 광복거리(도로폭 100m 誇示), 청춘거리 등이 新設되고 있음.

- 안골 體育村 등의 建設은 올해 7月 平壤에서 開催 豫定인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안골 體育村에는 안골스타디움(9個競技館)과 觀光호텔 등이 建設 내지 준공되었음.
- 大同江을 中心으로 南쪽 方向에는 문수거리, 대학거리, 동대원거리, 탑제거리, 새살림거리 등이 있음.

다. 平壤市の 有名建設物

- 平壤高麗호텔 : 해방산 거리에 위치(45層)
- 平壤凱旋門 : 모란봉거리와 칠성문거리 및 개선문거리의 合致點에 위치(높이 60m)
- 萬壽臺議事堂 : 만수대거리 북측
- 玉流館 : 大同江邊(옥류교북측)
- 人民大學習堂 : 서문거리와 남산거리사이
※3천만권의 藏書能力과시
- 平壤驛 : 역전거리(평양고려호텔 남쪽방향)
- 平壤百貨店 : 고려호텔 남쪽
- 平壤大劇場 : 버드나무거리
- 萬壽臺藝術劇場 : 서문거리(인민문화궁전 동쪽)
- 平壤產院 : 동대원거리와 대학거리, 탑제거리의 合致點에 위치

○蒼光院：서성거리

※沐浴 및 水泳場

○蒼光山旅館：천리마거리

○普通江區域에 105층 호텔 新築中('87.8 착공)

라. 平壤地下鐵 實態

○地下鐵 路線名

—千里馬線('73.9 개통)

—革新線('78.9 개통)

※총연장 35km

○地下鐵 驛名

—千里馬線：봉화, 승리, 통일, 개선, 전우, 붉은별역

—革新線：광복, 건국, 황금별, 건설, 혁신, 전우, 전
승, 삼흥, 광명, 낙원역

○地下鐵 運行 및 料金

—運行時間：출·퇴근시엔 3분간격으로 운행

기타시엔 6~7분간격으로 운행

—車輛數：1回 運行에 3輛정도

—料金：10전(成人)

※勤勞者 한달 勞賃：약 60원 정도

〈서울 地下鐵路線 現況〉

路線名	區 間	區間距離	驛 數
1號線	서울역~청량리	7.8km	9個驛
2號線	시청~강남~시청	54.2km	46個驛
3號線	구과발~양재	26.2km	23個驛
4號線	상계동~사당동	28.3km	24個驛
		116.5km	102個驛

◎ 大同江에 旅客船 運航 宣傳

〈發表內容〉

- 平壤海運事業所는 3月 1日 짐배(貨物船)를 運航시킨데 이어 3月 21日에는 첫 여객선을 띄웠음.
- 이 旅客船은 金日成廣場 앞에서 주체사상탑 사이로, 평천부두에서 두루섬 사이로 往復하며 東平壤에서 中區域, 평천구역에서 낙랑구역사이를 오가는 시민들의 출퇴근과 여행을 보장함.

(中放, '89. 3. 26)

〈評價〉

- 北韓은 '86. 6 서해갑문 건설로 大同江河口에서 平壤까지 1,000 톤급 船舶運航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榮光號, 平壤 1호 등 遊覽船을 平壤-南浦間에 運航시키고 있음.
- 이번 平壤市 大同江의 여객선운항은 平壤市에는 지하철 이외에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데다 大同江의 橋梁不足으로 東·西 平壤間의 交通不便이 深化되자 이를 해결

- 하는 한편 大同江의 觀光을 위해 취해진 措置로 보여짐.
- 앞으로 北韓은 大同江을 利用, 남포-덕천, 남포-사리
원간의 여객선 운항도 실행할 것으로 보여짐.

◎ 「음력설」을 公休日로 지정

— 지난해 秋夕명절도 지내 —

민족고유의 명절을 배경해 온 북한이 지난해 秋夕에 이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음력설을 公休日로 지정하고 쏘주민들에게 음력설의 유래와 쇠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음력설)을 맞아 平壤방송 등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논설」·「문답」·「방문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음력설의 유래와 쇠는 방법,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음력설을 쇠는 모습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음력설을 양력설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음력설을 국가명절에서 제외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그들 사회의 통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음력설을 잊고 살아왔는데 북한이 이와 같이 음력설을 전통명절로 칭하며 對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것으로서 북한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조짐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우기 이번에 북한이 음력설을 부활시킨 시점이 한국에서 음력설을 양력설과 비교하여「舊正」또는「민속의 날」등으로 부르며 다소 등한시 했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그 명칭을 본래의 이름인「설」로 환원하고 전통명절로서 대대적으로 기념한 것과 소련의 우즈베크공화국에 거주하는 韓人동포들이 50여년만에 처음으로 음력설을 합법적으로 쉬게 된 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음력설을 전통명절로 부활시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 새삼스럽게 음력설의 유래와 쇠는 방법 등을 각종 선전매체에 장황하게 소개했다. 예컨대 지난 2월 5일「중앙방송」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민속학연구실 부교수인 손희창과의「문답」프롤로그를 통해 음력설이 三國時代때부터 전해내려온 민족고유의 전통명절이라고 그 유래를 밝히며 설 음식·세배풍습·설맞이 민속놀이 등 조상전래의 미풍양속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은 음력설을 새로이 부활시킨데 따른 주민들의 궁금증을 희석시키는 한편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력설 부활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즉 북한은 2월 6일 平壤방송 논설을 통해『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동적이며 보수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그동안 음력설을 양력설로 대신해왔던 사실을 합리화시키면서 오늘날 북한에서는 金日成·金正日父子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민족문화가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추석·음력설과 같은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날들을 휴식일로 정하고 『온갖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해방전에는 가난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설날이나 추석날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오히려 슬픔을 더해 주는 날이었다』(2.6 平壤 「논설」)고 언급함으로써 지난 40여 년동안 북한에서 음력설을 민속명절로 기리지 않았던 이유가 경제생활과 관련이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오늘날 북한주민들이 음력설과 추석·단오 등 민족고유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黨의 은덕』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북한 선전기관들은 실로 40여년만에 부활된 음력설을 즐기는 주민들의 과세분위기를 방문기 형식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예컨대 2월 6일 북한의 「중앙 방송」은 平壤市 용성구역에 위치한 화성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이곳 주민들의 느낌과 설맞이 민속놀이 광경을 전했다.

이 방송은 한 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력설을 즐기는 북한주민들의 「감격」을 전했다는데 이 노인은 『즐겁게 음력

설을 쇠노라니까 눈물겹던 지난날이 되살아난다』고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내가 지금 가슴아픈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金正日 동지의 배려만 받을 따름이지 그 은덕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음력설을 부활시킨 북한당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짐작케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윗놀이 광경을 보도하면서 『음력설을 맞으면서 녁동살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9작업반의 김정숙동무가 녁동살이를 미리 끝냈고, 10작업반의 정실동무가 3동을 따라 앞서고 있다.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는 동무가 11반하고 경기를 하게 된다』고 언급, 민속놀이조차도 사회주의노력경쟁 방식의 작업반별 대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한선전매체들은 주민들의 설맞이 광경을 전하면서 「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미풍양속인 조상을 숭배하고 윗어른께 세배하는 등의 모습을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앞에서 언급한 바 처럼 金日成·金正日父子의 「은덕과 배려」만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에서 음력설을 국가명절로 지정한 것이 「설」의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더우기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사회주의 명절」이란 미명하에 종래의 민족고유의 전통명절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건

설에 필요한 상징적인 날을 새로이 국가명절로 제정하여 이를 휴무일·축제일로 삼아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음력설의 부활이 민족전통명절의 본래 모습으로의 부활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秋夕에 이어 올해 음력설을 국가명절로 부활시킴으로써 그동안 완전히 도외시켰던 민족고유의 명절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과 소련의 韓人사회에서 음력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가는 민족간의 異質化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북한에서 음력설의 부활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명절」이라는 이름 아래 설날(1.1), 金正日생일(2.16), 金日成생일(4.15), 정권창립일(9.9), 黨창건일(10.10)을 5대명절로 하여 이날만을 휴무일·축제일로 지정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이 명절들을 명실상부한 축제일로 기념하기 위해 1년에 5차례씩 배급하는 고기와 과자 등을 이날들을 기해 나누어주는 등의 對주민 환심책을 써왔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추석을 국가명절로 지정하는데 이어 올해 음력설을 새로이 公休日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국가명절은 사회주의 5대명절과 음력설·秋夕 등 모두 7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노동절(5.1 메이데이)을 公休日로 지정하고 있다.

(내외통신 627호, '89. 2. 17)

V. 統一教育專門委員
市・道協議會 動靜

“慶尙南道 協議會” 사무실 개설

「統一教育專門委員 慶南協議會」는 지난 3월 1일 오랜 숙원이었던 협의회 사무실을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4층에 개설하여 각종 협의회 업무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소 :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0-16

경남 문화 예술회관 4층 (전화 : 0591-55-0020)

통일 교육 전문위원 경남협의회 회장 강계주

「市, 道協議會 動靜欄 개설 안내」

이번호부터 “통일교육”誌 발간시에 각 시·도 협의회 동정 및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欄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요령 —

- 내용 : 시·도 협의회 動靜, 활동사항 등.
- 매수 : 200자원고지 3매 정도
- 제출처 : 통일연수원 관리과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 5-19)

—時事資料—

統一教育('89-2)

1989年 5月 日 印刷

1989年 5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文 化 社

(電話 278-3421, 3422)
